

贈呈

速記文化

-1-

8月10日

第 4 號

大韓速記協會

時 言

趙 瓊 奎

機械文明이 高度로 發達된 오늘에도 言語의 機械적인 活字化는 그一部分이 成功하였을뿐 如何한 發音이나 그自體를 即刻 文字化할 수있는 段階에는 未達하였을 뿐만 아니라 韓國語의 構造上 또는 漢文混用이 不可避한 現實情임에 비추어 速記法利用範圍는 相當한 期間 擴大될것이 展望되고있다 아울러 時時刻刻인 人智의 進比와 民主的要素의 充溢은 爲政者의 公約과 抱負를 한낱 空間에 拘束되는 虛構에 拘束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이를 實踐케 하고 不信에서 信으로의 過程을 밟게 하는 데 있어 忠實한 報章으로서 眞은 史實의 編纂者인 速記人들의 活舞台가 展開되어가는 時期라 아니할수없다 따라서 새로운 俊才를 養育하고 既成人의 能率을 向上시키며 時代的要求에 相應한 職務態勢를 完備하여가는 速記協會 嚮路者의 責任은 重且大한바 있다

우리나라 速記의 發達史는 議會와 더불어 不過數年이고 協會를 이룩하지는

日淺하나 斯界人들의 團結과 相互協助 協에 誠을 다한 活躍으로 漸次 社會의 認識을 새롭히고 實技面의 能率을 完成으로 이끌어 正常한 速記界 發展의 礎를 굳건히 하고있으니 祖國의 民主化에 寄與하는 功勞 또한 적지않다 아니할수없다

地方自治法의 公布以來 地方行政의 自主性은 確立途上에 놓여있고 이에 隨伴하여 民衆의 覺醒이 時急하고 올바른 輿論의 指導와 啓蒙은 現下의 急先務로서 이에 當할者 爲政者나 言論界는 勿論이거니와 正確과 迅速의 심본이며 假飾이 容納될수없는 速記人들에 負荷된 責務 또한 크다 아니할수없다 이 때를 즈음하여 社會의 中堅을 이루어야 할 責務를 지니고있는 그대들 젊은이들은 對內外的인 範圍의 敏捷한 連絡으로서 時宜에 맞는 運動을 始終如一한 努力과 情熱으로서 展開하여 果敢한 踏實을 맺기를 바라야 할바이다

[筆者 協會名譽會長]

目

次

時 言.....	1	第二回速記無料講席開催!	8
協會名稱變更의 意義.....	2	演士가 希望하는 速記.....	19
速! 競技大會를 열다.....	5	地方速記界 圖情紹介.....	13
國防部長官에 陳情書.....	8	職業女性과 家庭.....	15
速記士의 讀書.....	19	世界名作 巡禮.....	22

協會名稱變更의 意義

新 大韓連記協會

舊 大韓連記學術協會

金 銀 基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그 特徵의 하나로서(團體)가 많음을 들수있다 各樣各種의 團體가 各地方마다 構成이 되어 이것이 民主政治의 基礎를 이루고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와같이 團體의 數가 많음에 따라 小地方團體로부터 中央團體에 이르는 그 團體의 名稱은 一見하여 그 性格을 把握할수 있게끔 命名되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團體의 名稱이 그 性格을 完全히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 價値가 없는것이다 營業를 目的으로하는 營業 團體에 있어서 濫用된 名稱을 使用하는 것은 어느 程度 別問題라 하겠지만 營業 團體가 아닌 公共團體에 있어서는 그 目的과 性格이 그 名稱自体에 完全히 表現됨으로서 名稱의 意義가 있는것이 다 對人關係의 團體에서 萬若 學術研究의 目的이 二次的인 것임에도 不拘 하고 그이름을 學術團體로 하였을 때 이에 接하는 사람은 곧 이 團體는 對內的인 學術研究를 主目的으로 하는 團體라고 即刻的인 判斷을 내리고 말것

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對人關係에 놓여있는 公共團體에있어서는 그 名稱이 恒常 그 團體의 目的과 性格을 表現하고있어야 비로소 그 團體의 所屬의 事業進進이 圓滑이 될것이다 따라서 名稱에있어서 그 性格과 範圍가 달라졌을 場合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遲滯없이 名稱을 變更하지 않아서는 안되는것이 다

이와같이 團體에있어서 그 名稱이 가진 意義가 그 重要性이 크다고 할진대 여기서 述하고저하는 大韓連記協會의 新行한 名稱變更 亦法 커다란 意義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過去 創立總會以來 불리워진 大韓連記學術協會라는 名稱이 去般 第二回定期總會에서 異議없이 「學術」二字를 削除한 大韓連記協會로 改名通稱된것이다 方便 單純히 생각할때 名稱變更의 理由가 아무것도 없는것 같고 語感上으로도 前者에 불리워오던 이름이 좋다고 생각 이 될는지모르나 「學術」二字가 있고 없는에 따라 이에 接하는 第三者의 印

象이란 完然히 다름것이고 또한 그 생각하는 範圍自体가 다름것이라고 본다

지난날 創立總會當時 大韓連記學術協會라는 名稱이 어떠한 經濟와 理由로써 부처지게 되었고 또한 어떠한 意義가 있었는가 하는것을 잠간 記述함으로써 二年이 經過된오늘에 와서 그 名稱을 變更치않으면 안되겠다는 그 必要性과 理由에對하여 理解가 充分한 納得이 갈것이다 처음 協會名稱에 對한 論議가 始作된것은 協會發起準備委員會에서 부터였다 여기에 提出된 名稱의 試案은 『大韓連記文化協會』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名稱은 過去 六二五事變前에 逸波式에서 使用하던 協會의 名稱과 同一하다는 理由로 一部の 強力한 反對에 부처지게 되어 結局 『大韓』을 『韓國』으로 고쳐서 『韓國連記文化協會』라는 名稱을 가지고 發起人大會에 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發起人大會에서 다시 名稱問題가 論議되자 『韓國連記文化協會』라고 하면 既存해 있는 似而非團體인 『韓國連記者協會』와 同一視될 憂慮가 있다는 發起人大會에서의 多數의 意見으로 말미암아 『大韓』이라고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대韓』에 倅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始初부터 『大韓連記文化協會』를 反對하던 側에서 그대로 受諾할 理由萬

無한 것이었다 그래서 大會劈頭부터 名稱問題로 若干의 混亂이 惹起된바 있었다 이에 折衷案으로서 나온것이 『大韓』으로 다시 還元하되 『文化』를 『學術』로 修正하여 『大韓連記學術協會』로 하자

는 修正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名目上에 있어서의 折衷이지 事實上 折衷이 아닌 前記한 두개의 名稱과는 그 性質을 달리하는 새로운 名稱인 것이다 單只 이것이 發起人大會에서 別異議없이 通過된 것은 發足當 初부터 派式間에 名稱問題를 가지고 論爭을 거듭한다는 것이 協會發展에 큰 支障을 招來한 念慮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새로운 名稱에 對한 具體적인 思考없이 無條件諒解가 되어 通過된 것이지만 本來 目的이 없던 協會의 性格과는 若干 符合되지 않는 서운한 느낌을 갖게 하는 名稱이어서 이 協會名稱의 變更에 對한 意圖는 間斷없이 會員間에 일어나고 있어 結局 二回定期總會에서 『大韓連記協會』로 改名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經濟로서 變更된 新名稱과 舊名稱間에 어떠한 差異를 그 性質上 內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過去の 名稱에 익숙해진 會員間에는 적으나 疑問視되고 있을 것이다 『大韓連記學術協會』라고 할 것 같으면 協會

의 憲章과 發起趣旨에 對하여 全然
 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째로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純然히 對內的인
 速記學術인 研究하는 團體로서 認識될
 것이라는點이다 그러나 協會憲章에
 規定되어 있다싶이 速記에對한 學術的
 인 研究란 二次的인 問題이고 目的
 이며 어디까지나 一次的인 目的이란
 速記文化의 發展과 速記人의 權益擁護
 에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速記에對
 한 學術的인 研究를 한다고 하더라도
 協會에서는 各派式에서 研究된 그內容
 에 依하여 法式間에 長短點을 相互交
 換하는 그以上の 뚜렷한 研究는 할수
 가 없는 것이며 研究란 어디까지나 各
 法式에 局限되어 行해 지는 純然한 對
 內的인問題이므로 協會에서의 學術研究
 란 部署는 協會傘下에 들수있는 一部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協會의 全性
 格을 表現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
 러한 「스케일」에서 新名稱과 舊名稱間
 에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大韓速記協
 會」라 하면 舊名稱과 같은 一方的인
 協會의 目的을 表現한 것도 아니고 憲
 章

章에 列擧된 全目的을 表現하는 名稱
 으로 이傘下에는 諸分野의 各己分類
 된 機構를 또한 設置할수도 있는 그
 야만도 韓國의 速記人을 總網羅하여
 我國의 速記文化를 正當的으로 向上發
 展시킨다는 目的의 自体에 完全히 符合
 되는 名稱이라 하겠다

團體에 있어서 그名稱이 지남바 意
 義가 크다고 할진대 全般 變更된 大
 韓速記協會는 一面에 있어서 本協會와
 發展을 尋求하는 것이요 他面에 있어서는
 사는 보다 廣範闊한 分野로 發展되어
 갈 前途를 두함이라 아니할수 없다

[筆者 協會 監査]

..... 어떤 關係이신지요?
 訪問客 (어느 秘設病院에서)
 - 바-커中尉를 만나고싶은데요
 看護部長- 一般訪問客은 面會謝絕입니다
 어떻게 親戚이라도 되시나요?
 訪問客 (大담하게)
 - 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누이
 동생이지요
 看護部長- 어찌던! 처음피니 반갑습
 니다 나는바-커의 어머니랍니다

往復車票

停車場의 發票口에서
 女子 - 三等往復 한장 주세요
 事務員 - 어머가지 않습니까?

女子 - 뭐요? 勿論 여기까지지요
 내가 往復을 달라지 않았어
 요 ?

遂 〇 競技大會를 열다

七月二十一日 文總會館서

民國院과 文敎部 韓國日報社를 비롯하여 國內各界各層의 絶對的인 聲援아래 速記協會主催로 지난 七月二十一日 文總會館에서 開催된第一回全國速記競技大會는 全國各派式의 優秀한 速記士들이 多數 參加하여 大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文總會館會議室에는 대마침 長重개인 大은날씨였으나 參加者와 來賓들로 立錫의 余地가 들어차 韓華水事業部長司會로 十時三十分에 開幕. 會長을 代理한 金鎮基前理事長의 開會辭과 文敎部 科學技術敎育課長의 祝辭로 開式을 裝飾하고 이어 鄭源道審査部長의 競技上注意事項으로써 競技에 들어갔다

期議는 午前中正・準級の 演說休(民國院速記錄)五分間式 그리고 이어 反文后 靈食을 取하고 午後에 다시 正・準級の 論說休(韓國日報社說)五分間式이 開演되고 反文하는 順序로 進行되었다

午前의 反文이 끝나서부터 審査部는 錄音器를 對照해가며 審査에 着手하였

審査總評

1. 몇은部分에對하여 論의가 乏은 點이 있는것을 보고 感激했다는點
2. 論點에 있어서 總體不足과 常識의不足. 韓漢文常識不足과 一般常識의 不足

午後反文이 끝나자 審査時間의 餘餘를 利用하여 文化映畫를 上映하여 參加者와 來賓을 慰勞하고 下午四時二十分 施賞이 있었다

施賞前에 鄭部長의 審査總評이 있었는데 準級入賞이 없게된 理由說明이 있은后 趙奎奎名譽會長이 正級一等賞(民國院議長賞) 二等賞(名譽會長賞)을 各各授與하고 文敎部 朴君在高等技術敎育局長이 三等賞(文敎部長官賞)을 授與하였다 施賞式에는 鄭科學技術敎育課長 文總務局長 金君氏 民國院速記課長 金靈根氏가 參加하였다 施賞后 趙名譽會長이 朴君在博士의 別項과같은 懸曲한 祝辭과 鄭部長의 「공병우打字機」紹介와 金星漢理事長의 閉會辭에 이어 金靈根氏先唱으로 萬歲三唱을 하고 下午四時四十五分 閉會하였다

入賞者 및 參加派式은 다음과 같다

- 正級一等 宋貞浩 逸波式 미스 三%
 " 二等 崔기重 " " 四"
 " 三" 徐萬福 " " 五"
 參加派式 逸波式・高麗式・東邦式・韓國式・世宗式 (事業部)

3. 正級과 準級外에도 또한 級의 設置가 必要視된다

(審査部)

講 評

應試者가 적은 것은 現實情에 起因의 程度 出題와 朗讀에 있다고 볼수있지
겠지만 不운한 일이다. 出題와 朗讀에 妥當을 가 Y 또한 審査部長이 指商한 것
있어서 于先 出題를 正級·準級の 層 차를 種類의 多等分(正級·準級以外에)
論이나 一般常識을 考慮함이 없이 選擇 은 必要하다고 본다

한것은 審査部의 無經驗과 無能의 所 大體로 보아서 이번 大會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겠다 朗讀에 있어서도 始終 서 進行되고 또 앞으로 參議院과
正確히 精讀이 못하고 늦고빠르게 또는 民議院分科委의 公開 및 各言論機關等으
로 正級과 準級の 標準速度와 符合되지 않 모의 速記界의 發展을 目前에 둔 것이
게 朗讀한 것은 큰 失策이었다고 보아 너만큼 爲難가 크고 時期에 適宜한 것
審査部의 覺醒이 望望된다 이었다

이번에 準級이 入賞 못한 原因이 어 (文化部)

趙瓊奎名譽會長激勵辭

오늘 이 韓技大會는 第一回인데 今年
을 契機로 해 가지고 二回 三回繼續 될 것
입니다마는 오늘 여기 보기에 五十名程
度의 參加者가 있었다고 보는데 慾心감
에서는 몇千名 몇百名이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速記의 必要性이
確實히 增大될것만은 事實이오니마는
앞으로는 조그만한 모임이 있다고하드
라도 速記가 아니면 到底히 할수없는
이러한 時代가왔으면 합니다 鎔鑄自休
는 直接 文字化한 다른지 永遠히 廣範
固하게 保有할수없는 것이 事實입니다

韓國의 速記가 다른나라에 比해서 뒤
떨어졌다는것은 그만큼 文化가 뒤떨어
졌다는것을 證明하는것입니다

오늘 準級에서 入賞을 못한것은 대
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來년에는 入賞의
타라고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一年后에는 오늘 參席한 五十名이 그제
는 全部 入賞할수있는 實力이되도록
努力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一, 二, 三
등을 하신분은 그것으로서 滿足하지않
도록 三, 四%의 誤字에서 百%完成에이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朴哲在文敎部高等技術敎育局長祝辭

오늘 競技大會에 제가 여러분에게
暫間 말씀드리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
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速記를 배운사
람이 적을줄압니다 解放后에 우리나라
에 速記高等技術學校가 세워진지가 일
마되지않고 日漸한 이때에 이러한 競
技大會를 해서 勸賞을 하게 된것을 大端
히 意義깊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速
記뿐만아니라 各方面에 있어서 우리 나
라가 많이 뒤떨어졌있고 어느方面으로
말하면 全然 缺가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缺를 補正시킬수있느냐 하는 어려운
問題가 있는것입니다 速記는 그레도
배운사람이있어서 競技大會를 하게된것
은 기쁘기 限이 없습니다

요 다음 機會에는 더욱 優秀한 成績을
내실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科學이 極度로 發達하여 어
느方面에 研究하는사람들로 五年, 十年
式 專門的으로 研究를해서 技術이 發
達되는것이기에 때문에 모든面이 거기에
順應해서 追及하지않으면 뒤떨어지는것
입니다 速記도 亦是 그러한 科學이
發達됨에 따라서 어떻게 指向할것인가
여러분이 많이 研究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데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速記의 使
命이 重要한데 그使命을 다 할수있을
것인가 하는點에 研究를 하셔야 될것이
고 이速記가 우리나라文化에 有益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것입니다

(文 實 文 化 部)

去般 全國速記競技大會 開催에 있어서 各界各層의 物心兩面의 後援에 對하여는
協會員一同 感激을 不兼하지너와 이에 贊助하여주신 여러분께 紙上을 通하여
再三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後援하신人士와 內譯一 가나다順)

- | | | | |
|-----------|-----------|-----------|-----------|
| 郭義禎議員 金一封 | 朴永鍾議員 金一封 | 尹一相議員 金一封 | 黃慶秀議員 金一封 |
| 金振晚 " " | 孫道心 " " | 李鍾壽 " " | 黃南八 " " |
| 金寶基 " " | 申義湜 " " | 李亨顯 " " | 議長室 金계당 |
| 具興南 " " | 宋宇範 " " | 田萬重 " " | 民主黨總務部 |
| 金法麟 " " | 梁燦注 " " | 鄭文欽 " " | (民議院) 金一封 |
| 朴已云 " " | 廉友良 " " | 金仲男 " " | |
| 朴定根 " " | 方錫石 " " | 河泰煥 " " | (總務部提供) |
| 朴容益 " " | 盧承煥 " " | 河乙春 " " | |

第二回速記無料講座開催

大韓速記協會에서는 지난 七月二十三
日부터 市內校洞國民學校에서 協會의
定期事業의 하나인 無料講座를 開催하
였다.當初豫定人員은 八十名인데 二十
二日 하오에 殺到한 申請者가 二百名

을突破하여 有餘한 그들을 못미칠바없
어 百二十名으로 增員마감하였다. 이번
採擇法式은 選拔式이며 期間은 一個月
間、講師 韓 民議院에 勤務中인 現役
撰成者들이 擔當 하고있다

國防部長官에 陳情書提出

大韓速記協會에서는 지난 五月二十二
日理事會를 開催하고 近間 都下各新聞
紙上에 宣傳하여 一般青年 學生들을
感惑시키고있는 韓國式의「國防部委屬」
에 對하여 既히 八五年부터 軍에서
採用하고있는 高麗式에對한 實情을 말

하고 우리나라速記界의 發展을爲해서
前記「委屬」을取消하여줄 것을 懇請하는
陳情書를國防部에 提出하였던바 國防部에
서應答이 있어 八月六日 理事長 總務部
長및 安理事가 國防部當局者와 面談하
고 該當措置에 取消를確約받은바 있다

* * * * *

* 常 識 的 諷 刺 *

* * * * *

議員들이使用한 漢文短句解說

1. 人然無過리요 改以之貴라
(論語 學而篇 孔子言)
- ① 人間에게는 過失이 있 유적한것이다
萬一 過失을 알았으면 躊躇하지 말고
곧 고쳐야한다
2. 人必自悔而 後人而悔之
(孟子 離婁上篇)
- ② 사람은 스스로 辱하고 然後에 또
사람은 그를 辱한다 卽 말하자면
自重할을 알라는 말

3. 吾豈好辯諸 盖不得已也
(論 語)
- ③ 내가 어찌 말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다 不得已해서 하는것이다
4. 知者千慮一失
(晏子春秋 史記穰官傳一等에 인용)
- ④ 智惠로운者도 間或 失策이 있다
언제나 무엇에나 賢明한사람은 없는
것이 라는뜻

(研 究 部)

여기며 다만 要望이라고 하는것은
여러분의 健勝과 奮勵로서 正確한
記錄의 投軍이 되어주심을 바랍니
다

2. 國會 運營委員會에서도 詳瞭한바있
고 또는 各分科委員會에서도 要望
하고있으며 去般 國會法改正案에도
論及되어있지만 國會 本會議速記錄
의 必要性은 勿論이거니와 各專門
分科의 發言內容을 速記保存함이
얼마나 緊要하다는것은 再言 不要
의 事業입니다. 그렇에도 不拘하
고 現在 豫算決算委員會안의 速記
實行은 遺憾된 일이며 歎할 일입
니다. 迅速한 時日內에 各分科委
員會에 必히 速記士를 派遣시켜
會議實況을 記錄作成하게 하여 앞으로
議政史에 遺誤가 없도록해야 할것
입니다
3. 各각스러운 問難라 特히 말씀드릴바
없습니다

民議員 金 喆 安

1. 大体로 速記士職位에 對하여 遺憾
을 表하는바이며 무엇보다도 議員
들의 發言을 記錄하는데 어떤때는
誤字가 間或 있으니 注意하기 바
라는 바입니다
2. 分科委員會 速記錄도 重要한 案件
에 對하여서는 作成하는것이 좋은

출로 합니다

3. 速記士들은 언제나 萬般의 準備로
서 議員들의 發言을 잘 聽取하여
紙面에 옮기도록 熟練되기를 바랍
니다

民議員 羅 熙 集

1. 多少의 落字가 生하는 懸이 有하
니 特히 注意하여야 할것이며 特
히 漢字의 相連點에 注意하기를
要望함
2. 必히 速記士를 常時配置하여 速記
錄을 議員에게 配發하여야 할것이
다
3. 速記士의 職務는 激務라 思得되
어 人數은 現在보다 增員하여 執
務時間을 減少시켜야 될것이며 物
質的으로 優待함이 良策으로 생각
한다

民議員 白 南 畝

1. 速記士의 時間的 餘裕가 無하여
激務도 因함이라고 思料되나 往往
誤字 落響에 對하여 慎重히 檢討
해 주시기를 要望함
2. 他國의 例를 보면 分科委員會會議
을 重點的으로 함으로 委員會의 速
記錄이 絕對 必要함
3. 現行速記士에 對한 速記手當은 有
名無實이고 速記는 激務임으로 現
行手當의 三倍以上 引上하여 特別

維持함을 要望함 但 基準 速記枚數를 決定한後 超過枚數에 對하여 適用함이 妥當함

民議員 梁 一 東

1. 速記는 時代文化의 縮圖이다 그리고 그것은 眞要한 史 歷史다 現在 國會에서 作成되고 있는 速記錄은 大韓民國 立法府史에 眞要한 足跡을 남기는 하나의 史 史實임에 勿림없다 則에 現在 國會에서 만드는 速記錄은 議員의 發言內容에 있어서 間或 誤字等이 介在되므로서 그 旨意가 眞 方向으로 그릇 解釋되거 쉬운 例가 不無한것같고 會議內容이 明確하게 描寫되지 못함으로 故에 그 會議進行經緯가 그 速記錄을 읽는이도 하여금 釋然하게 解得되지못할 念慮가 多分하다고 思料된다
2. 國會가 그 機能을 迅速하게 發揮하기爲하여 委員會中心制度가 採擇되면 더욱 그 作成이 必要하거나 現在에도 委員會中心으로 議案을 處理하는 例가 많고 特히 經濟問題等에 對한 豫備審查에 있어서의 會議進行經緯는 이를 반드시 速記錄에 남겨두고싶다 그리고 委員會 會議進行狀況을 本會議에 正

確하게 反映시키기 爲해서도 이것은 絶對 必要하다

3. 本會議나 委員會를 莫論하고 速記錄 作成에는 眞重을 期하고 內容에 齟齬가 없도록 格外히 留意할 것을 要望한다

民議員 柳 珍 山

1. 議會生活를 通하여 切實히 느껴진 것은 速記의 眞要性이라 하겠다 速記의 正確與否는 곧 우리나라 歷史의 正確與否를 意味하는것이거 때문이다
2. 分科委員會에 반드시 速記士를 配置하여야 한다
3. 速記는 人類文化의 眞要한 技術分野인 까닭에 여기에 從事하는 人士의 認識을 좀 더 높이고 處遇를 改善하여야 할것이다

民議院 運營委員長 趙 淳

1. 速記가 本發言과는 正反對의 表現으로 나오는수가 往往있는데 原因을 알아 善處함이 殊尙것이고 漢文 熟語 修習이 좀 더 必要하지 않을까요
2. 當分間은 眞要한 會議에만 利用함이 現實에 妥當한다
3. 特殊一方의 神經의 過勞를 緩和할수 있는 健康維持 方案이 特히 必要할것이다

演 士 와 速 記 士

「거울을 보고 주먹질하는 醜女」格
으로 發言內容이 自身의 뜻에 神通치 않
어도 速記士의 記錄 잘못임의 責任轉嫁
를 하는 境遇도 있는지라 專ら 이 速記士
이기는 하지만 勿論 사람인 速記士도
그 辯辭 達辭 能辭 熟辭을 寫記하는 데
間或 誤謬도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演士가 速記士에게 바라는바 있으려니
와 速記士 또한 演士에게 드리고 싶은
點 적지 않으려니 都大體 速記士가 理
解 못하는 演說이란 一般聽衆에게 通曉
理曉無하다는 것은 責任지고 斷言해도
無妨하리라

明白치 못한 發音, 모에 걸리는 소리, 極
甚한 方言, 입속에서 우물거리는 소리, 말
끝을 따하지 않고 집어삼키는 것, 演士만
이 아는 特殊用語? 등은 演說의 効

果를 切減케 할뿐 아니라 都大體 記錄
할 道理가 없다 더구나 鎔解되고 앉인
速記士가 옳고 싶을 程度로 우물거리는
演士에는 정말

그야 速記士들은 平時에 演題 議題
에 對한 知識도 넓히고 研究하여야
할 일이나 "보린"과 하나에도 치를 떠
는 關係職員들의 容출에는 情이 獨
떨어진다. 各專門分野에 述語 特殊用
語는 勿論이거니와 漢文知識은 現下
議會方面에서 全盛期니만치 時代에 逆
行하는 感 不無하나마 速記士들의 必經
條件이겠다

어쨌던 現場은 말할 것도 없고 錄音器
까지 千番 萬番 들어야 東에도 西
에도 닿지 않는 發音에는 고만
文化 部

會 務 日 誌	<p>▲五月二日 第一次理事會</p> <p>第二回總會에서 選出된 理事 十三名 全員 參席하여 部署決定 및 理事長 選出, 顧問推戴와 會務間 有機的連絡關係, 文化誌의 月刊問題, 韓國日報速 記記者採用問題等 論議</p> <p>▲五月十三日 第二次理事會</p> <p>夏期速記無料講座開辦問題論議</p> <p>▲五月二十日</p> <p>江原道議會 徐平吉會員으로부터 十二名の 準會員加入推薦 次期理事會에 退付</p>	總 務 部 提 供
------------------	---	-----------

地方速記界實情紹介

(釜山地方)

(一) 速記士活動狀況

首都서울의 三分之二程度의 人口를 擁하고 있는 우리나라 第二의都市釜山/ 이곳의 速記界現況은 어떠한가? 人口面에 比해서 서울과는 比較도 안되는 實情임을 엿볼수있다

速記를 가장 有效하게 使用할 議會方面에서부터 보기도한다면 干先 慶南道議會와 釜山市議會는 京畿道外의 他道에比해 가장 많은 議員과 會議日數를 갖고 있으며 討論案件도 매우 重要하다. 그리하여 兩議會議員의 發言을 全部 速記하는것이 必要하다는것은 道와市當局에서도 認定하여 議會發足時부터 速記를 採擇하고있으나 아직까지도 各各 一名式의 速記士를 두고 있을뿐이다

慶南道議會에는 서울式出身인 朴元求氏가 擔當하고있는바 氏는 避難國會當時 國會速記士로 入職하였다가 國會가 還京後 殘留하여 囑託이었던 道議速記士職을 本職으로하여 現在에 이르고있다. 報酬은 月四萬圓程度이며 會議錄까지 作成하여 休會時에는 一般事務도

兼務하고있다

釜山市議에는 前記 朴元求氏의 弟子인 서울式出身의 李廷仁氏가 速記를 擔當하고있다. 그리고 兩議會에서는 會議가 있을때마다 日當 四千圓으로 臨時囑託速記士를 雇傭하여 前記兩人이 서로 도와주고있는 形便에있다

이곳 言論機關을보면 在釜 三大新聞에서 各一·二名의 速記士를 採用하고있으며 二萬圓内外의 待遇로서 一般記者를僱하는한편 서울과의 電話(市一)를 記錄하는 新聞社의 至寶들이다. 이곳에는 十餘의 各種通信支社들이 熾烈한競爭을하고있는바 近間 無電施設을 많이利用하고있어 速記士登用을 積極推進하려는 氣勢는 보이지않고 막사 速記의 必要性을 切感하는 通信社도 經營面의 難題로 速記士를 採用치못하는 形便이다

機關方面은 海岸警備隊와 慶南警察局 公報室에서 各各 有能한 速記士를 配屬하고 機關長의 訓示, 會議, 座談會等等의 速記를 擔當하고있다

(一) 速記音及狀況

現在の活體相도 満足치 못하거나 普及面도 極히 不振中에 있다. 前日의 新聞大學의 速記課目도 廢止되고 YMCA에서 每日 1시간 間式 高麗速記法을 가르치고 있는 外에는 完全한 速記講習所가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近間 本協會 副會長인 金天茂先

生이 速記學院을 設立하려고 積極推進中에 있다

勿論 似而非速記學院인 「文化速記實業專門學院」이라는 近似한 看板을 내 걸 곳이 있으나 最近에 이르러 在學生들의 學院當局에 對한 不信으로 閉門前夜에 놓여 있다

(二) 速記人들의 覺醒의 緊要

端的으로 말해서 이곳 既成速記士들의 「에고 이즘」과 一部 責任을 갖는 速記人들의 努力不足으로 因해서 後進養成이 遲遲不振하고 職場開拓에 많은 隘路가 있다 하겠으며 그들의 團結과 活體으로써 能히 議會 新聞通信社를 비롯해서 裁判所 一般 官廳 其他 各方面으로의 發展의 길이 드립 것이라고 確信한다

參考 釜山地方速記同人들의 現況
慶南 道 議 林元求(서음식出身)
釜山 市 議 李廷仁(")
國 際 新 報 權在奎(逸波式出身)
洗 滌 報 洪基禎(高麗式出身)
釜山 日 報 錢石根(")
民 主 新 報 朴權翼(")
中 央 通 信 鄭漢仲(")
海 岸 警 備 隊 監 監 金秀吉(")
慶 南 警 務 局 公 報 室 金斗植(")

△五月二十二日 第三次理事會
會 準會員加入(江原道)決議 審察委員會構成(鄭原道審察部長이 現部員外 三
務 名을 要求하여 異議없이 通過)編輯委員會構成(文化部長이 三名要請 紙
日 記名投票로 選出)殘餘會誌處理를 認務, 文化部長에게 一任 被夜大會
誌 는 六月中으로 하기모하고 次回理事會까지 計劃書提出할 것을 決議 安仁
榮理事의 國防部訪問經過報告와 구에對해 張憲根理事의 提議로 文化, 專
業兩部에서 對國防部陳情書를 提出토록 決議 金今男 文化部長이 中央學
院關係問題를 提起하였으나 結果없이 散會

職業女性과家庭

李 善 培

舊習을 벗어나

過去에는 우리나라 女性이라 하여는 嚴守하는 慣習이있어 女子가 外出을 하든가 職場을 가져 家庭 以外的 分野에서 動作을 取하며는 그 女子는 兪서 倫理와 廉潔 離脫行爲를 犯한 사람같은 좋지못한 世評을 받게 되는 것이 例事이며 제 아무리 家外의 社會的活動素質이 豐富하여 自身의 才能으로 手腕을 發揮하면 自身의 發展은 勿論 國家에도 影響力을 與수있는 女性이라 할지라도 環境의 支配를받아 自己의 個性을 充分히 培養하지못하고 숨겨버린채 本意아닌 生活環境속에서 小生을 마치고 다고한다면 그것은 國家와 民族社會를 爲하여 不幸한 일이라고 斷言할수도 있겠읍니다

一人二役의

그러나 世紀가 轉換되고 六·二五動亂의 눈물겨운 生의 試練과 아울러 世界文化가 交流됨에 따라 國內의 文化도 發展되고 個個人이 社會를 認識하고 思考하는 面도 老練되고 세모워짐에 이어 삶에 활한 새로운 意氣이 敏求되어 男女의 生活境界를 分別치않고 自己周圍의 環境과 能力만 許容되

다면 如何한 分野에서 手段과 勞苦를 缺아림이없야 盡力하면 自身의 生을 充足할수있는 社會가 興분되며 그 影響을 받은 現狀에는 어느職場을 살피도 女子가 同席하지않은곳이 드문 現狀이라 社會에는 職業女性이 增加되어 男性과함께 일할수있는 資格과 活動能力을 갖게 되도 家庭도 분분수있는 一人二役의 重責을 지니게 되었읍니다

自由스런게 일하게 된反面 自由는 自身의 心身을 더 무겁게 抑制하여 自身이取한 결과 行의 責任보 自己스스로 가 지고 解決하게 되었다는覺悟下에서 銳利한 自己批判을 가지고있으며 職場에서는 恒常 事務的이고 機械的인 活動만을 行爲하여 지루한感을 가지오기 쉬운 딱딱한일에 同性아닌 異性이 섞이어 相互明瞭한 氛圍氣를 造成하는 同時에 自身의 職責에 對하여는 誠實히 履行하여 能率的이고 信賴있는 職務를 完遂하는데 온갖 精神을 傾注하고 아무런 事務的인 일이라도 女性의 品格을 忘却하지않기에 留意하여 健康한 職員이되고 一段 歸家后에는 어디까지나 家庭人으로서의 態度를 具備하여 各分野에서 心身으로 仕달리고 巧달품

을 아끼고 갖아손 家族에게 輕快하게 하루의 疲勞를 回復시켜주어 다음날의 構想과 計劃性에 支障없는 家國氣를 만들고 家族間에는 相扶相助하며 和睦하고 明朗하게 즐기하는 同時에 細細한 일에까지 精神을 가다듬어 남다른 實明한 頭腦로 一役을 할 때보다 二役의 重任을 지게 되었으니 動作도 沈沈하게 二倍 三倍로 힘을 내어 그날의 日課를 남김없이 盡心盡力하며 남모름 努力과 手酷로 精神적으로나 經濟面으로 或은 肉體적으로 貧弱한 우리 家庭을 爲해 일하며 모욕한다면 文化水準도 向上되고 經濟的 基礎도 穩固세워 建設的이고 創造的인 福된 榮우리가 자미물삼고 繁盛하여 家族들은 安定된 生活環境속에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여 自己가 計劃한 일에는 泰然 自若하게 進行시키고 實踐한다면 그 成果도 優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個個人은 每事에 深愼 熟考하며 살아간다면 그 家庭은 나날이 向上發展되리라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一部 社會의 住民들은 健全하고 安樂한 人生軌路의 福배를 갖지 못한 채 苦悶을 방황하며 日課를 헛되게 消日 하느라고 自己의 任務도 完遂치 못하게 되어 定着된 生活를 營爲할 수 없어 人

間生活에 退廢一踏을 止揚하는 苦悶의 人士가 許多하므로 社會는 不安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 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또한 社會의 人士를 가리켜 鼎의 鬚이 버섯처럼 蓬아있다는 不名譽스런 諺句까지 生기게된 現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女性들은 自己生活에 適應한 計劃을 考案하여 實施한다면 家庭은 和樂하여지고 社會에 裨하여는 興衰를 가지고 男性만을 依存하는 習性은 變遷하여 自活의 能力으로 生을 打開하는 能力이 助長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相互助力하므로써 健全한 家庭을 이룩하여 社會構成要素의 核心體인 한 家庭... 한 家族이 나날이 繁榮하고 發展된다면 社會과 國家民族도 自然的으로 家庭과 더불어 育成될 것이며 社會는 明朗하게 움직이고 國民의 生活는 安定되어 康完된 環境에서 삶을 憧憬하는 住民이 적어지고 現實에서 家庭과 社會를 分離시키지 않고 그 둘은 合하여 同體라는 常念下에 進取性 있는 生活樣式을 普及함으로써 女性의 治路는 開拓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筆者 民議院議事課職員)

부 부 부

會員 "푸로필", 鄭源道先生

外
五
明

슬고추은 三冬을역고난 우덕에게 따
뜻하고 포근함을가 저다주는 봉의慕香과
도같이 濃厚한印象을종겨주는 先生은
이나라 連記界의 元祐요 또한 至寶的
存在다 先代傳來의 儒敎思想에다 現代
的風潮를 알맞게加味한 先生은 누구보
다도 禮儀나보고 잔잔한湖水를聯想시키
는 맑고 고요한 性格을 지닌분이다

國會連記係長이며 連二代나 本協會審
査部長의 重職을 맡고있는 先生은 일찍
기 逸波先生에게 가보침을받아 오늘
에이른바 先生의足跡이 바로 이나라連
記의 年輪이기도하다 더욱이 先生은
後輩養成의 必要性을痛感하여 鎭山避難
時에 我國唯一의 國立連記學校인 大韓
連記高等技術學校를創建 오늘날까지 獨
連記學을擔當하고있다

技士의生命이 機械물다루는 솜씨에있
다고하면 人間의眞價는 人間의統率力에
있으려니 先生이야말로 人間操縱士로서
滿点이리라 公에는 무척 嚴格하면서도
度에넘지않고 私에는 이틀비없는 부드
터움과 親密感을느낄수있음은 非單 筆
硯밖의느낌은 아닐것이다 그러기에 審
査部長의 까다로운職責을 大過없이 이
끌어 오고 國會連記係의 尙大한살림살이

禍根은 입으로나오고 病은 입으로든다

를 알뜰히 꾸려오는것이다
남보기에는 딱딱하고 글지아픈 連記를
하니 人間性마저 무덤줄誤認하기쉬우나
先生에게는 人間으로서의 참된 아가자
기한面을엿볼수있으니 「스프링 맨」이
자 映畫「팬」이며 娛樂은 모두즐거
못하는게없고 「유모어」와 「윗츠」는
더욱 特出하니 可히 眞眞人間이라고
일컬을만하다

先生은 正宗二升을 앉은자리에서 까
딱하지않고해치우는 酒太白으로서 國會
連記課 少壯派酒黨 顧問으로서 推戴되
고있다

先生은 서울 殍生으로 國學大學 專門
部를修了 한때 實業界에서 實務를擔
當했던일도 있으며 解放直後 逸波式連
記士養成所 第一期生으로卒業 立法議院
을거쳐 오늘에이른바 靑州에 年暮하시
父母任을 모시고 家庭에서는 先生을
晝夜로 補弔하는 師母任과 一男一女의
家長으로서 餘暇에는 花叢가꾸기 또는
귀여운 子女들과더불어 忙中閑을즐기는 有
福한분이다 門下生의 한사람으로 先
生의 家庭에 더욱 더 幸福이 깃들
기를 바라면서 이만

東

一事文類聚一

各法式基本記法對比表 第一回

述語 法式	中央式	科學式	逸波式	高麗式
一瀉千里	1/12	101	1	1/12
五里霧中	1/12	2e	1/12	1/12
雪上加霜	152	100	13	1
針小棒大	011	101	21	1/12
賊反荷斌	24	100	2	14
事必歸正	46	101	101	24
名實相符	0110	101	10	11
附和雷同	27	101	101	14
東問西答	101	101	01	14
有耶無耶	10	101	1/1	1/1
我田引水	1/11	11	1/1	1
馬耳東風	1/10	11	1/1	2/1
自家撞着	1/1	1/1	2/1	3
自繩自縛	1e4	11	1/1	1/1
空中樓閣	1/12	1/1	1/1	1/1
言語道斷	1/1	101	1/1	1/1
拔本塞源	1/11	101	1/1	1/1
袖手傍觀	1/1	1/1	1/1	1/1
自暴自棄	1/1	1/1	1/1	1/1

- 會務日誌
- △六月二十一日 編輯委員 尹壽鉉 金永浩 高氏 委囑發令
 - △六月二十五日 第五次理事會
 - 編奉永事業部長으로부터 校大會要綱提出 字句修正을 加하여 通過
 - △七月九日 第六次理事會
 - 贊助金條目 事業部員省員 審査規定審議
 - △七月十八日 第七次 理事會

速記士들의 讀書面을 보다

連日 許多한 演士들의 東西 名言을 對보 하여 그들의 讀書面을 國會圖書史料로 엮어나가는 우리速記士들은 어 館 閱覽室에서 엮보기로 하자. 現在 더로부터 그들의 常識或은 知識을 補 이 三十六名을 年令別로 區分한다면 充해가고 있는것일까? 다음과 같다 (讀書와 年令은 密接한 여기 民議院速記課의 三十六名을 相 것은 아니겠지만...)

※ 年令 과 學歷 ※

21歲 ~ 23歲	10名	33歲 ~ 35歲	4名
24歲 ~ 26歲	8名	學歷別로 본다면 大略	다음과 같다
27歲 ~ 29歲	6名	高卒	~ 18名
30歲 ~ 32歲	8名	大在	~ 8名 (夜間大等在學生)
		大退	~ 10名

이러한 分布率로서 그들의 讀書面은 어떠한가?

國會圖書館 閱覽室 貸出係에서 나온 統計에 依하면 速記士들은 閱覽室을 利 用하는 率이 極히 적고 反面에 冊을 貸出하는 量이 많다 昨年 即 八九年七 月부터 今年(九〇年)六月末 現在까지 一年間의 貸出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貸出者 三十二名 貸出書籍 總計 五百拾三卷 一人平均 十六卷 그러니까 一人 이 三個月에 四卷의 冊을 읽은 셈이 되고 平均 한달에 한卷以上 본것으로 된다 最高貸出者가 五十七卷으로서 一個月에 平均 五卷의冊을 읽은셈이되는데 이것은 主로 文學書籍이다 그리고 全然 貸出치않은 速記士가 四名있었다 이들은 主로 閱覽室을 利用하는 便이라고 보겠다

※ 貸出書籍을 種別하면 ※

哲學書籍	4.3%強	經濟學關係	3.1%
宗教 "	1.7%弱	社會學 "	2.5%強
社會科學部門에서	(14%)	其 外	
政治學關係	1.0%弱	歷史地理學書籍	5.2%強
法 學 "	7.4%強	美術學書籍	2.0%弱
		文 學 "	69%

自然科學系統은 極少數이고 化學書籍을 본사람이 한사람 있었다 그리고 詩學 이 1.3% 있었다 者位는 亦是 文學이고 專門分野에선 法學이었다

인 력 뷰

具 然 東 氏

國際通信編輯部長

外信發送에 바깥上午九時頃 編輯室로
 氏를 찾았다 아무렇게나 느러놓은 壁
 內 와이샤쓰바탕으로 세분뒤에 드사된
 작달막한키의 主人公 강과른 얼굴에
 初생달같이 가로제인눈 알뻐한머리털이
 若干神經質인듯? 어딘지 냉정한것같이
 보였다 來談을傳하니 「뭐 나같은 사
 람을...」하는 말투가 경은하다 八
 十年전에 安岩洞所在 姜曉憲氏經營의
 서울速記專門學院에 入學速記를배웠다니
 於焉 十年의 짧지않은速記生活...한
 때 國會에도있었고 事變중에 國軍一聯
 隊文官으로있다가 時事通信을 거쳐 現
 在에이르렀다는 經歷 「經驗談을」하니
 「뭐 別로없지만...八四年度時事通信

時節이 나의速記全盛期였나봐요 勿論치
 음에는 일도사무보고 아주 혼이났지만 次
 次익어가서 한서너덜되니 우리記事가紙
 面에오를때만할수없는 喜悅을느꼈읍니다
 하면서 當時를回想하는듯핏기없는 얼굴
 에微笑를공진다 배울적에는 남보다 四
 個月늦게 補缺로들어가 六個月에修了하
 였다는秀才인데 그德分에 助詞같은것에
 間或不便을 느끼는때가 있다고吐露한다
 通信速記에서 가장愉快한것은 몸 뉴스
 를取扱한때라하며 速記에對한 社의評은
 좋다한다 그러나 財政難으로 必要한部
 門에도 當分間採用기어려운 形便이라고
 同社에는 現在 錄音施設은 없고 다른
 社도 速記에 附隨的이라고한다

△五月二十三日

三總理事會에서 進出된 資格審査委員 李柱範 金仁榮 李東淳 編輯委員 金
 哲淳 金允株 李東一 以上 各各 委屬發令함

△六月二十日 第四次理事會

會 韓半永事業部長으로부터 技大會의 財政參加範圍 資格(正 準二級)等
 務 說明決議 技大會時日을 七月二十一日로 決定 命 勇文化部長으로부터 會誌
 月報로 發刊과 二名의 編輯委員 派員要求로 委員長의 推薦으로 尹壽鉉
 日 金永浩兩氏로 決定 對國防部陳情書發送은 理事長 總務部長 安仁榮理事에
 誌 기 一任處理 無料講座에 있어서 金哲淳理事으로부터 邊波式採擇과 後務要
 求가있어 다음 理事會에 計劃書를 提出토록하고 散會

＝功勞를 빼앗기지＝

電話速記는 現在 그다지 取扱치않는때 가장 不快한것은, 外勤記者들이 記事材料만 連絡을 해놓고 速記士가 記事를 만들어 記載하면 작성 記事에對한 稱讚은 外勤記者가 받고 間或 잘못된記事가 있으면 그責任은 速記士에게 뒤집어 세워 辱만 먹는다고 苦笑한다

＝外國語에 能通해야만＝

速記士의 職業轉用問題에 對해서 물으니 「元來 速記士는 外國語에 能通해서 各種外信을 全部 國文으로 翻譯速記할수있는 能力을 기르는것이 重要지요 記事作成에 있어서 그方面으로 進出하면 有能한記者가 될수있을것입니다」

「速記士出身의 記者와 一般記者와 어느 便이 能率的입니까」

＝發展할餘地는있어＝

「글세요 勿論 個人的인 力量에 달렸지만 速記士出身은 要領을 窺워하는面이 不足한것같아요 그저 모르리 速記해서 尙大한 材料는 만들지만 料理술씨가 不足한것같아요 그런면만 是正하면...그러나 지금 速記士들은 거개가 젊은층이니 앞으로 發展할 餘地는 充分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政治經濟方面으로...」

＝速記는 잘배웠어＝

氏は 繼續해서 다음과같이 말한다

「速記를 배운後의 傳 失을말하면...苦生도 많았고 速記때문에 單적으로 發展 못한것도있지만 綜合적으로 생각할때 缺欠點이 많었다고 생각합니다 政治經濟方面의 知識向上과 外國經濟이라는 外國放送等에서 일은常識 名士들의 좋은 예기등은 自己修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배운것이 確實히 效果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抱負는?＝

抱負를 묻는말에 語塞한 表情을 지으면서...

「글세요 지금 이대로 內勤으로 있다가 나중에 外勤記者로서 政經部系統으로 登고싶습니다」

말하는가운데 어느새 冷淡한 表情도 사라지고 말았다 方便 氏は 庚午生 當二十八歲이며 忠北報恩殆生으로 大東商高를 거쳐 東大經濟學科를 二年中退하고 三年前에 이룩한 보급자리에선 새살난 말이 재통부리는 單출한, 살림이다.

- 80年 서울速記專門學院入學(서울式)
- 82年 民議院 速記士
- 84年 時事通信入社
- 86年 國際解信入社 現在 編輯部長

社會는如何한時代에 있어서도 사람의實力의發揮을 妨害하지 않는다 (카-라일)



비 는 고 요 히

Y·S

비는 고요히
 荒廢한 꿈 무덤위에
 부질없이
 애처웠던 그
 옛날 일처럼 소근 소
 근 나리고
 하 많은 光陰을 타고
 鳴咽에 떠는, 서편마음
 門을 여니
 오오 어두운 窓가에는
 그 많은 風浪 자죽이

되네
 煩惱의 가지덤불
 幻想의 불 바다며
 이 모두
 한날 꿈, 꿈이며
 廢墟에서 廢墟 廢墟에지
 虛傳로 가는, 오죽 속
 권없는 길이다
 오오 이 어두운窓가엔
 부서진 조각들 하나

들, 어미며
 사는 내 憔悴 한얼굴이
 되이네
 비는 고요히
 내 荒廢한 꿈 무덤 위
 에 부질없이
 애처웠던 그 옛날 일
 처럼
 소근 소근 나리고

世界名作紙上巡禮

第一回

GABRIELE D'ANNUNZIO

◇ 죽 음 의 勝 利 ◇

(1863 1938)

==줄거리==

主人公「줄초, 아우리스파」는 性格적으로나 敎養上으로나 그가 遺産을 相續하게 된 그의 三寸 「베베르리오·아우리스파」의 精神的인 아들이었다
 이 三寸은 그가 가슴 쓰라린 秘密을 지니고있었기때문인지 그렇지않으면 生存하는것을 忍耐할수없을만큼 鋭敏한 智力을가지고 있었기때문이었는지 어쨌든 自我殺害하였던것이다

「줄초」도 亦是 狂信的인 情熱家이며 殘酷하다 하리만치나 精細한 心理分析家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傷感입기쉬운 自我中心的인 青年이었던것이다
 이小説은 「줄초」와 그의愛人 「이브리타·캄피오」와의 精神的으로 極地까지 다달아버린 사랑의結末을 묘사한것이다 「이브리타」는 男便과別居하고있는 女子로서 「줄초」에게는 다시없이 어여쁘고 特히 그이마와 눈과입은 靑스럽다고까지 感嘆할만한 魅力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들의사랑은 벌써 二年이라는 歲月을 거처은것이어서 지금은 이미 그網罟를넘어선 感覺도없지않다 「줄초」는 銳利한 分析의 「메스」로 그들自身의사랑을 解剖하고있다 한便으로는 이저까지 못할만한 誘惑을느끼면서도 또 한便으로는 「이브리타」에게對하여 一種의 敵

設 問

앞으로의 速記文化는 어떻게 해나감으면 좋겠습니까?

- 1. 刊行期間
 - 2. 體 制
 - 3. 掲載作品
 - 4. 其 他
- 2. 4. 6倍版이나 菊版으로의活版印刷
 - 3. 速記學術의普及, 速記術의發展을爲한 論文, 協會各派式의 紹介 (學術的)
 - 4. 社會에速記에對한 正當한 認識을 주기爲한 方案의 講究

(無題)

金 震 熙

1. 隔月刊

讀까지도 즐기始作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女子가 그의精神的内部에 무엇인지 腹
 스러운點을 發見했기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自己自身の 精神的内部를 探索한
 려고하는 「종교」의 疲勞한感覺과 그모하여금 生活目標을 그의精神的인 解體症
 狀이 主要한 原因이었던것이다 그러한 意識은 印象으로 말미암아 觸發된 華麗
 하기도 우울한 感覺의斷片으로 埋여져있는것이다 行動도하고 創造도하려는 不安
 스러운 衝動을 느끼고있으면서도 그는 이러한 感覺의 외오리바람속에서 消耗하
 고 渴渴하여 아무것에도 滿足을 느끼지는못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7번제의 사
 랑의記念日을 「알바노」에있는 「호텔」에서 지낸다음 「종교」는 혼자서 祖
 親의 집을찾아갔다 3寸의 遺囑을相續한다음 「종교」는 肉親들과 떨어져 「모
 마」에서 安樂한生活을 하고있으나 兩親의집은 寒蕩하고 殘酷한 父親이 小室을
 얻기때문에 母親은 언제나 苦生을 免하지못하며 누이同生 「크리스티나」는
 허弱한아이를 다리고 五十歲에 들어선 늙은男便과와 살림에힘써 지내고 있다
 절름바리며 狂信的인 늙은姑母 「종교」는 여기서도 이러한사람들이 自己의 肉
 親이라는 事實에 自己嫌惡를 때아프게 느낀다
 「에베덴탈」한 自身の집에 힘겨워있는 그는 이와같이 醜惡한것을 비웃고 미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原理를 發見못한다 副屬한 父親에게對하여 嫌惡를 느끼
 는것은 곧 自己自身을 미워하는것이라할수도있는것이다 「종교」는 母親을爲하여
 談判을지으려고 父親을찾아갔으나 結局은 父親에게속고 도망가듯이 兩親의집에서
 떠난다 이러한人間이 죽임에의해력을느끼게되는것은 當然하다한것이다 自殺한 三

金百坤

- 3. 피모록 外國의 靑靑을 紹介하는 것으로 우리와 對出하여 볼수있게 . . .

尹炳高

- 1. 新滿州이던 月刊
- 2. 從前대로
- 3. 各法式間의 優劣點을 忌彈없이 紹介하는 研究欄의 設置가 있었으면

盧元鎬

- 1. 年2回乃至 3回(但 現在形便에 서는)
- 3. 外部人士들의 速記士에 對한 要求 및 設想을 詳히 掲載할것

金允承

- 1. 從前대로 可
- 3. 主觀的인 作品을 되고 每號 一定한 사람의 作을 掲載하는것보다 外部人士의 執筆을 依賴함이 좋다

崔榮泰

- 1. 적어도 二個月에
- 2. 表紙가 色彩로 된 固定的인것
- 3. 日本其他外國으로부터의 速記應休의 書信等을 掲載紹介하기를

- 1. 1個月
- 2. 國會速記錄과 같은 . . .
- 3. 會員 프로필

尹壽鉉

- 1. (可及的이던) 月刊
- 2. 新聞으로(二面程度라도)
- 3. 協會宣傳을 主로하고 이격저격

宋貞浩

- 1. 年二回로 했으면
- 3. 어느學問에 對한 專門的인 學說이나 或은, 法律, 經濟, 歷史等에 關한連載같은것이 있었으면
- 4. 原稿募集에 精誠을 用리는것같은데 自進해서 내는 무슨妙案을 發見할수없는지 . . .

松岩

- 1. 月刊
- 2. 公報形式
- 3. 速記界의 紹介作品

황규진

- 1. 月刊
- 2. 「판프렌」형으로(4, 6版)
- 3. 會員에게 꼭 알려야 할 消息을主로한 記事와 其他作品若干

會務日誌	△七月二十一日 全國各派에서 三十八名 參席하여 市內文藝會館에서 第一回全國速記義技大會 開催
	△七月二十四日 第八次理事會
	第一回全國速記義技大會 專業 豫算決算審議

贈呈 文化速記

政府樹立十周年記念
第一回速記展示會特輯

4291. 12. 11.

23/37

108



大韓速記協會

速記文化

第五號

4291. 12. 11



大韓速記協會

◀表紙題號·金騰顯▶

展示會에 寄함·····名譽會長·李在鶴··(1)

速記展示會特輯

發刊에 際하여·····理事長·鄭源道··(2)

나의 要望·····李鎬賑··(3)

速記의 需要와 供給

—特別 速記附業에 對한—·····金震熙··(5)

會員에게 부치는 말·····張基泰··(7)

速記士와 讀書·····申鉉經··(9)

斜線派에의 魅力·····姜駿遠··(11)

내가 본 國會速記士·····金相洙··(12)

速記普及에의 새로운 構想·····鄭鍾冕··(15)

似而非速記를 糾彈함·····金鎮基··(16)

實記主義에서 修文主義方向으로·····韓奉永··(18)

圖書館의 語義와

그의 現代的 性格·····任石宰··(20)

大韓速記協會會員名單·····(22)

第一回 速記展示會 特輯·····(24~49)

展示會開催에 寄함

名譽會長

李 在 煥



사람의 聰明이 鈍筆만 하지못하다는 옛말이 있다.

이말은 내가 여러해동안 議政生活을 해오며 記錄에 餘念없는 速記士를 볼때마다 그말이 머릿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記錄의 重要性은 말할나위도없이 記錄文化의 正常的인 發展은 곧 그나라 그民族의 文化의 尺度를 알수있는 것으로서 이로 미루어본다 하더라도 記錄文化의 一翼을 지니고

있는 速記文化야 말로 重且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제 全國의 有數 速記人들의 結合體인 大韓速記協會主管下에 速記展示會가 開催됨에 際하여 會員 여러분에게 祝意를 드리게 됨을 저속이 기꺼워 생각하는바이다.

韓國의 速記歷史는 그리 오래지 않았으나 十餘年동안에 長足の 發展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速記文化史上 貢獻한바가 至大라거니와 오랜 議會生活을 通하여 나는 누구보다도 速記士와 因緣이 깊다. 每日과 같이 國會에서 速記士의 도움을 받고 있고 速記記錄을 重視하기 때문이다.

議員의 發言을 一言一句 漏落없이 記錄하는 速記士들이야 말로 秋毫도 치질이 없는 眞實 그대로운 것이다. 速記士의 使命이 털끝만치의 거짓이 없는 眞實 그대로이기에 그의 生活이 그럴것으로 確信하여 나는 速記士를 信賴하고 尊敬하고 理解하려한다.

各樣各色의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빠치지않고 記錄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것이라 믿으나 이 機會에 會員各位에게 이 展示會를 通하여 앞날의 우리나라 速記文化發展에 進一步하여 不動의 軌道上에 올려서 앞으로 速記人의 權益을 擁護하여 會員各位의 向上이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展示會를 開催하므로써 더한層 記錄文化에 貢獻이있기를 期待하면서 祝賀의 뜻을 表하는바이다. (筆者·民議院副議長)

理事長 鄭 源 道



今年四月에 開催된 本協會第四回定期總會時 會員多數의 意見에 依하여 今年度事業에 하나로서 速記展示會의 開催가 決定되어 理事會의 委任事項으로 넘어온 것으로 去間 數次에 亙한 理事會에서 展示會를 爲한 準備會合 및 小委員會構成을 하게끔 되었다.

展示會가 일찍이 協會發足以前 制憲國會末로 記憶이 되는에 國會速記課主催로 日淺한 우리나라 速記界實情을 紹介한바 있었다. 當時 우리들은 次後에는 좀더 內容이 充實한 展示會를 갖을 것을 期約하였던 것이다.

그後 6.25動亂이라는 民族의受難으로 말미암아 많지않은 資料나마 紛失을 하게 되고보니 今次 展示會亦 微弱한 內容이나마 次期展示會를爲한 準備段階라는 自慰로서 始作을 하게 되었다.

制憲以來 2代 3代를 거쳐 4代初까지의 本會議會期, 次數 및 開會時間과 各分科委員會의 會期, 次數 開會時間을 速記執務表에 依한 統計를 잡아보았고, 各議員의 發言速度 또한 速記實務에 依하여 計算하여 一覽表로 作成하여 展示하고본즉 會議次數 發言速度共히 回數를 거듭할수록 上昇되고있어 이에 隨伴하여 우리나라速記의 研究가 더욱 期待되며 必然的인 要件이 되고있음을 證明하고있는 것이다.

一般에서 말하기를 速記를 한 그時間의 倍程度만 지나면 原稿가 되어나온 것이며 또한 速記란 어떤말이든 機械처럼 記錄할수있고 또 數個法式을 統合하여 一法式으로 할수있지않느냐는 등의 速記를 習得해보지않으면 理解할 수 없는 部面을 眞정 解明해보았으나 이것 表現不足이랄가 滿足지못한感이있다.

특히 今般에는 外國速記의 實態를 紹介코자 外國과의 連絡을 取하였으나 時間關係로 資料를 얻지못하여 展示지못함을 遺憾으로 여기는바이다.

本協會發足の 目的가운데 하나인 似而非速記의 是正에 對하여는 「速記의 似而非性」이라고 題한 展示物속에도 明示된바와같이 社會에 輩出조차 못하는 法式이야말로 많은 學徒로하여금 物的, 精神的, 時間的인 浪費만을 주며 如斯한 法式은 百害無益의 存在임으로 勇斷있는 行政當局의 措置가 要望되는 바이다. 이번 展示會準備中 民議院議事局長 李鑾賑先生 同速記課長 金震熙先生의 敦篤하신 聲援鞭撻은 走馬加鞭格이 아니라 鈍馬加鞭格이었으며 錦上添花로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共同主催와 民議院事務處後援의 큰 힘을 얻게되었다. 끝으로 民議員諸位의 物心兩面의 援助가 있었음을 本協會會員一同을 代身하여 感謝하는바이다.

李 鎬 賑



나는 4個月前부터 國會速記學校를 運營하는 責任의한 部分을 맡게되었다. 速記術을 배우지 못하였고 速記에 對한 理解를 깊이 갖지 못한 나로서 速記養成의 일에 關與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두렵워 하는바이다. 그러나 速記士의 大部分을 國會가 需要하고 國會의 議事가 速記의 過程을 通하여 記錄되며 國會가 速記士養成機關을 運營하여야 하는 緣由를 알기 때문에 議事局이 가진 職務를 完遂하기 爲하여는 나 自身이 速記에 對한 理解를 充分히 하고 한 사람의 速記士와 같은 立場에서 思考하는 方式을 몸에 지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이미 速記界에서 活躍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速記術을 배우고 있는 분에 對하여 내가 바라는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不斷히 速記術의 練習에 힘써 주기 바란다.

速記란 「말하는 데 따라서 그대로 옮겨 쓰는 법」이니까 只만 말의 聲音을 하더라도 다 받아 쓰게 되어야 한다 말의 速度는 말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빨라지는 것이다. 듣는바에 依

하면 制憲國會當時의 最高速發言은 1分間에 350字程度이던 것이 第4代國會에 들어 와서는 470字程度가 된다는 것이다.

普通 300字 程度를 받아 쓸수 있으면 速記士로서 일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高速度의 發言을 받아 쓸수있도록까지 되려면 技術의 練習가 必要하며 表記方法의 簡略化를 더욱 研究하여 改良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高速度 速記로 인한 符號略化는 漸漸 個性化하게 되어 速記術을 아는 사람끼리라도 自己가 쓴것이 아니면 알수 없게 되는것은 免할수없다. 그러나 暗號와 같이 速記士 相互가 알아 볼수있도록 그 記號를 普遍化하는 方向으로도 研究를 계속히 해서는 안될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多幸히 速記打字機를 使用할수있도록 記號를 考案하고 있다 는 말을 들었는데 早速히 成功되도록 바라마지 않는다.

둘째로 豊富한 知識과 教養을 갖도록 平素에 工夫해 주기 바란다.

速記란 簡便한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법이니까 남이 말한 內容을 一言半句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옮겨 쓰기 爲하여서는 그말을 完全히 알아 들을수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분과 같은 程度의 敎養과 知識을 가져야만 完全한 速記를 할수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는 분이 法律專門家인가 經濟專門家인가에 따라서 그 專門部內의 말을 速記하려면 法律 經濟에 對한 知識이 必要한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分野에 있어서 專門家의 말을 速記할수 있게되기 爲하여는 哲學宗教로 부터 自然科學, 音樂, 美術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知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廣範圍한 專門知識을, 한 사람의 速記士에게 要求한다면 그것은 苛酷한 일이며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그리고 現在 速記士는 國會 新聞通信社 등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政治 法律 經濟의 常識을 가지는 程度로서 일을 감당해 나갈수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學術講義等에도 速記士를 쓸날이 오고야말 것이므로 그들을 豫期하여 各分野에 걸쳐 專門知識을 갖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速記術의 普及에 힘쓰기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의 速記士는 그 數가 얼마되지 않지마는 그 數조차도 收容할만한 일터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마스코뮤니케이숀」이 充分히 發達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速記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며 그 使用價値를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速記에 從事하는분은 널리 宣傳하여 그 普及에도 精力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 이 普及에 있어서는 大學生들이 速記術을 배워서 記錄에 도움 이되도록 하는 方面으로도 開拓을 하여야할 것이다 이것은 곧 速記士가 各分野의 專門知識을 갖추는 手苦를 節約하는 意味도 될것이다.

以上 몇가지 要望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要는 「速記란 무엇이나」하는 것을 늘 自覺하고 反省해서 速記가 文化에 있어서 占하는 位置를 鞏固히하고 發展시켜 그 使命을 다 함으로써 文化의 向上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筆者·民議院議事局長·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副校長)

重要圖書發刊目錄(一)

派式	著者	冊名	版	頁	發行所	發行年月日
逸波式	張格泰	수기말速記學 (上, 中, 下)		各 50p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	逸波式速記學概論		352	"	4280. 5. 15
		追憶의 手帖	編版	96	"	4285. 11. 30
		阿靚錄		15	"	
		三 發	編版	79	"	4288. 2. 20
		逸 波	"	77	"	4289. 3. 20
		逸波學報 1號	"	15	"	4289. 5. 14
		" 2號	"	10	"	4289. 5. 21

速記의 需要와 供給

—특히 速記開業의 提言—

金 震 熙



우리 速記의 歷史는 日淺하고 더우기 速記의 實務經歷은 解放以後 立法議院의 構成을 契機로 그 始發을 보게 되었으니 그 實務期間은 十二,三年 밖에 안되다. 그것도 六·二五事變으로 인한 空白停止期間을 除外하면 十年도 못되는 實務經歷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 速記는 그 出發이 日淺하기 때문에 아직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그 後進性을 未免한 現狀에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發展의 餘地가 많은 것이다.

六·二五事變으로 인한 速記人材의 殆半을 喪失한 速記界는 于先 速記人材의 養成에 注力을 했고 速記需要量의 大部分을 찾아한 國會에서는 釜山避難中인 四二八四年十二月一日에 速記學校를 設立하여 自體의 速記需要量의 充足을 圖謀했던 것이고 政府의 還都로 漸次 政局이 安定됨에 따라 速記士養成事業도 活氣를 띠고 各派式에서는 競爭적으로 臨했다.

그러나 優秀한 速記能力者의 養成은 短時日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相當한 年數가 要하는 것이다.

적어도 實力이 具備한 有能한 速記士가 되려면 五年以上 繼續 速記實務에 從事하여야만 一流速記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養成되는 速記士이지만 現今에 이르러서는 深刻한 求職難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多年間 心血을 傾注하여 養成된 이 文化技術이 供給의 餘力을 남기고 死藏되는 非運에 놓이게 되어 速記界의 發展은 一大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速記界의 當面問題는 職場開拓이 焦眉의 急先務로 되었다.

여기에서 速記의 需要面은 本래 國內에서 가장 速記比重이 큰 國會速記士定員이 釜山避難時에 八名이었던 것이 現在 五十一名으로 增員이 되어 있다. 그러면 釜山避難時의 國會의 速記需要量이 八名의 速記士로서 足하였던 것도 아니고 現今의 速記士 五十一名으로 그 需要量이 充足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國會의 本會議, 分科委員會會議, 特別委員會會議 등의 速記需要量自體는 恒常 百餘名의 速記士가 必要했지만 恒常 經費의 制約을 받기 때문에 國會의 諸記錄을 完全記錄이 못되고 如前히 重點記錄을 未免하는 實情이다. 于先 國會에서의 速記

需要量을 完全消化한다면 當面한 速記界의 危機는 當場解消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宿題로 남겨두기보다 하자 그것은 速記士를 必要모라는 모든 機關이 經費問題로 速記士를 採用 못하고 있는 때문에 經濟事情이 好轉되는 것을 기다릴 道理밖에 없기 때문이다.

速記의 需要와 供給은 여기에서 바르스가 깨트려졌다. 여기에서 筆者는 三年前 우리나라 著名한 法學者한 분이 著述을 하는데 出版業者의 督促으로 많은 苦惱를 받고 있는 事業을 偶然히 알게 되어 그 著述을 도움기 위하여 速記를 採擇하라고 勸한 일이 있다. 이 學者님이 筆者의 進言을 容納하여 그날부터 每日 한時間 두時間의 餘暇를 利用하여 口述하기 始作하여 短時日內에 脫稿가 되고 出版이 되었다.

이 著名한 法學者는 速記의 利用價値와 速記의 功德을 잘 認識한 것이었고 筆者는 여기에서 우리 現實이 速記事務所의 開設의 時期가 到來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速記士는 지금까지 速記需要者인 公私機關을 相對로 求職에 哀乞伏乞하는 形便이었고 一般 速記需要者에 對한 奉仕에는 等閑한 感이 없지 않다.

우리는 著名하신 法學者의 出版에만 奉仕할 것이 아니라 좀더 廣範圍한 創作著述 또는 外書의 翻譯著述事業에도 速記의 利用價値를 發見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自由速記業制의 開設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되는 것이고 現在 遊休速記能力의 活用을 提示하는 것이다. 卽 現在의 速記需要의 供給에 있어 職場所有速記主義의 一邊倒

에서 다시 分業化하여 自由開業速記의 兩立의 必要性이 認識되는 것이다.

이것은 速記界自體를 爲한 職場擴張의 意義뿐만 아니라 一般 速記需要者에게 文明의 利器인 速記術을 손쉽게 提供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著述速記, 座談會, 公聽會, 講演會, 學術講義를 爲한 速記는 主로 自由開業速記士가 專擔하여야 할 것이다. 그 業務分野는 大端히 廣範한 것이고 앞으로 더욱이 擴大될 수 있는 것이니 現在의 速記遊休能力은 이 方向으로 活用되도록 지금 곧 出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草創期에 있어서의 速記의 自由開業에는 많은 隘路가 따른 것을 豫見한다. 그러나 지금의 窒息狀態를 突破하는 한가지 남은 方途이라고 생각할 때 艱難 條件間에 實行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速記人諸位는 밖으로 向하여 速記의 利用價値를 親切하게 說明하여야 할 것이고 아직 速記에 對한 認識이 깊지 못한 우리 社會에 向하여 그 普及을 爲한 宣傳啓蒙이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하여 現在의 궁색한 速記需要量의 打開을 促進시키며 나아가서는 文化全般에 亙한 向上이 速記를 通하여 더욱 時間을 短縮시킬 수 있는 役割이 遂行되리라 믿는다.

速記에 門外漢인 筆者가 速記와 더불어 十餘年間의 因緣을 맺은 立場에서 敢히 速記人여러분께 提言함을 諒察하시기를 믿며 頭緒없는 말로서 塞責하는 바이다.

(筆者·民議院速記課長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校監)

會員에게 부치는 말

會長 張 基 泰



普遍的으로 職業化한 速記士들은 過去의 習學時代를 回顧할때 例外없이 그 情熱이 普通이 아니었음을 示唆한다.

이것은 速記學이 變경時兒童의 戲作같은 작비기 符號의 羅列같은 착각을 速想케하는 터이나 그 習學에 있어서 難關이 普通이 아니었음을 示唆하기 때문이다.

나 自身은 되도록 容易하고 되도록 能率的인 創案에 이바지 한것같지만 한글의 速記化란 亦是 한글 自體가 數千의 基本音字를 使用하니만지 比例的으로 複雜한데다가 習學期間이 겨우 1年을 일 삼으려는 奇怪한 數學에서 오는 無理와 더불어 雪上加霜格인 因果關係에서 오는 理想이라겠는데 보다더 近來 學生들의 心理가 쉬운말로 지저머기를 일삼고 最少의 努力으로 最下의 効力を 得하려는 安逸的思潮乃至 一躍 幸運을비는 虛荒스러운 心理作用下에 無事를 輕視하고 덤비는 경솔한 觀念에서 오는 弊가 不少하기 때문이기도하며 이것은 비단 速記學에 關해서만도 아닌상 竊타 社會人이 지나없이 零錢지공이 없이 上座

만 渴望하고 巨富를 꿈꾸는 習性이 雨後竹筍같이 너무나 두뿔이 보이는 것은 그 원일인지? 速記學에 대한 올바른 社會的 認識을 한時도 잊지 않는 터이나 이것을 진흙밭에 짓밟는 것같은 新開廣告(速記學에 對한)를 接할 때에는 實로 不愉快하기 짝이 없으며 언젠가 學問에 對한 惡毒行爲에 分겨울 禁하지 못한다.

本來가 大敗績을 하는데에도 그것이 專問的인 技術面을 나타낼려며는 幾個月에는 터도 없는데 하물며 文明 깊은 歷史 깊은 言語를 速記하는데 있어 딱딱듯이 된다는式의 宣傳은 무슨 論理인지 이러한 不合理的인 現況이 容許되는限 速記에 關한 眞價에 올바른 社會認識을 참말 期待하기 어렵다 虛偽와 쓸데없는 功名心 乃至 欲望을 버리고 眞實한 良心아래 一切가 訛傳되고 一切가 履行되는 社會는 果然이룩하지 못하는것인지! 社會人으로서 學徒란 자라나는 中堅人物의 바탕일진데 이들에게 失望을 주지않고 덕성과 孝行심을 培養시키지 않는 教育이 진실로 時急한 줄안다 이런點에서도 速記人들은 過去의 苦學時節을 거울삼아 後輩에게 臨한것이며 決코 眞을 허식하려는 行動이 없어야 할

것이다.

逸波式이 그 一期生을 낸지 今年부터 十個年이 된다 이들의 힘으로 다 시금 眞實한 速記士가 때마다 늘어났고 他式들도 더 전을 굳게하기에 努力을 애끼지 않고있음은 社會的으로 慶賀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速記에 대한 認識이란 박약하기 이물바 없다 萬一에 이것이 「메추리」 알각타면 눈이 뜰에서 알려고 氣를 쓴것인데... 이렇게 世事의 差異가 있으니 이러한 心理가 正而으로 부락쳐 眞正한 啓蒙을 欲求하는 行動에 難關이 적지않음은 不問可知일 것이다.

速記文化의 發育이 民議院 速記課員을 中心으로 牛步하는 現實에 더욱

拍車를 加할것은 오직 社會人士들이 理解와 더불어 眞實에 生命을 걸고 모든 苦難을 甘受하는 速記人들의 굳은 信念에 있을것이다 速記學에 대한 展示會나 速記實力에 對한 競技大會나 그것이 現時에 있어서 速記人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벅찬 行務임은 事實이나 그래도 온갖 精力을 傾注하여 實現을 보겠금 努力하는 精誠을 固守하고 나가는 限 韓國의 速記文化는 그래도 뒷걸음은 아니할 것이나 보더 敎育面에 있어서 眞과假를 判別케하고 各學校에 侵透케하는 方面으로의 努力도 切實히 必要한줄안다.

(筆者·逸波式速記法創業者)

重要圖書發刊目錄 (二)

派式	著者	冊名	版	頁	發行處	發行年月日
		逸波學報 3號	菊	15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4289. 5. 28
		" 4號 } 合	"	20	"	4289. 6. 11
		" 5號 } 合	"	28	"	4289. 6. 18
		" 8號	"	10	"	4289. 7. 10
		" 9號	"	12	"	4289. 10. 20
		" 10號	"	85	"	4290. 3. 15
		" 11號	"	189	"	4290. 10. 20
		" 12號	"	96	"	4291. 2. 25
高麗式	金天漢	速記 (1號-8號)	菊板	各150	高麗速記技術學院	
		速記教本 (1號-4號)	"	各 60	"	
		高麗速記學報 (1號-4號)	"	"	"	
서울式	朴喜善	簡化速記學	48倍	108	『雄辯』社	4285. 10. 10
	韓奉永	速記教本(第1冊)	48倍	35	서울速記研究會	4289. 5. 28
	姜慶遠	速記法抄本	48倍	37	서울速記館	4291. 8. 25
中央式	朴寅泰	中央速記		20	中央速記學院	4291. 7.

申 鉉 經

一. 國會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位置



(國會)는 民主

政治를 意圖한 三權 分立의 原則 밑에 꾸며진 立法機關으로서 民意를 反映시키기爲한 役割을 그 主要한 機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政黨政治가 發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國會는 그 背後에 協會 또는 團體 등의 壓力團體 등에 依하여 (美) 또한 日常의 으로는 政黨에 依하여 (西歐) 左右되는 것이며 따라서 各 委員會에 있어서의 活動 國會 本會議에 있어서의 活動은 法律 豫算 其他 重要 問題에 關하여 國內的 問題 또는 國際的 問題 등 그야말로 廣範圍한 分野에 걸쳐 國民全體의 共通利益을 爲하여 또는 政權의 維持獲得을 爲하여 또는 次期 總選舉에 있어서의 個人的 當選을 爲하여 熾烈한 論議가 展開된다.

(이와) 같이 各 分野에 걸친 議員들의 發言을 漏落이나 錯誤 없이 理解하고 記錄하는 國會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位置는 翌日 아침까지 印刷되어 나오는 國會 速記錄의 重要性에 비추어 重且大하다고 아니할 수 없

는 것이다. 速記錄 出刊의 正確性和 迅速性은 으르되 速記士의 多方面의 教養과 密接히 關係된다. 그러므로 速記士는 多方面의 知識과 教養을 쌓아 議員의 發言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받아 쓸수있는 能力이 要請된다. 即 速記士는 一 地方의 方言으로부터 外國語에 이르기까지 또한 日常生活의 常識用語로부터 專門인 學術用語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博識하지 않으면 알아 들을 수도 없고 따라서 받아 쓸 수도 없을 것이다.

速記士는 이와같이 重要한 任務를 擔當하고 있으므로 博識과 教養이 要求되는 어기에서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러나 人間의 頭腦活動에는 限度가 있으며 그 發展過程 亦是 여러가지 制限을 받아가면서 不斷한 努力에 依하여 차츰 成長하는 까닭에 速記士가 國會內에 있어서 任務上 重要한 位置에 있기는 하지만 이에 알맞는 適格者를 充員한다는 것은 期待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速記士의 不斷한 讀書과 自己教養에서만 期待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家庭에서 學校에서 그리고 社會에서 教育을 받아 오고 또한 自己教養을 爲하여 不斷한 努力을 쌓아 올려야 할 速記士로서 筆者는 그 自己教養을 爲한 讀書에 關하여 暫時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二. 速記士와 讀書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博識과 教養이 要求되는 速記士 특히 國會 速記士로서 有能한 여러분이 있다는 말은 틀은바 있다. 그러나 人間의 完全無缺은 바랄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있을수도 없는 것이다. 速記士로서는 아무런 有能한 速記士라 할지라도 그

의生涯全部를 하나의 敎養過程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며 그것은 또한 自己의 努力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自己 敎養에 依한 自己完成을 意味하는 것이다.

또 自己 敎育은 直接 보고 듣고 생각하며 判斷도 하는 일이 많으나 現代 文明은 他人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活字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고 있으며 이것을 읽는 것을 讀書라는 用語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學者는 이 讀書를 세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卽 (一) 研究하기 爲한 讀書 (二) 修養하기 爲한 讀書 (三) 趣味 및 娛樂으로서의 讀書가 그것인바 速記士의 境遇에는 前 (二) 者가 特別히 要望된다.

(첫) 제로 研究하기 爲한 讀書는 速記士의 處地에서 專攻하여야 할 專門的인 分野 다시 말하면 自己主題의 研究이다. 速記學 全般에 걸쳐 充分한 知識을 얻기 爲하여서는 學校敎育만으로 滿足할수 없은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이 不滿한 部分은 讀書를 通한 自己敎育으로서 補充된다. 이 讀書는 무엇보다도 그 分野의 眞理探究가 主目的이며 이 眞理를 探究하고 머리에 蓄積하여 斯界의 知識人이 될 으로서 自身의 位置가 調和되고 그 能力은 需要에 適應될수 있을 것이다.

(둘) 제로 修養하기 爲한 讀書인바 먼저 人間으로서의 修養 國民으로서의 修養 그리고 特別히 速記士로서의 修養 등을 들수있지만 前 (三) 者는 速記士들에게만 要請되는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速記士들로서의 修養을 爲한 讀書에 局限하여 言及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簡單한 問題는 아니

다. 特別히 國會의 速記士는 이비 말한 바와 같이 政治 法律 經濟等 社會科學 部門을 비롯하여 宗教哲學 藝術 歷史 科學 및 其他 各分野에 걸친 學術用語도 斯界의 專門家가 아니면 잘 알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部門의 常識的 用語는 알아 들을수 있고 또 記錄할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 各部門에 關한 知識은 絕對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多幸히도 國會 圖書館에는 活用價値가 많은 相當한 數量의 國內外 最新刊 圖書가 備置되어 있으므로 이 敎養을 爲한 讀書는 可能한 것이다.

(골) 으로서 趣味 및 娛樂으로서의 讀書에 對해서 附言하고자 한다 實은 이것도 各自의 專門分野가 있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읽어 보는 讀書라면 모르지만 自己 專攻分野에 많은 興味를 가지고 系統的으로 集中的으로 傾注한다는 것은 매우 愉快함을 禁할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方式으로 專門學者가 未及한 部分을 開拓하는 境遇도 있다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우리들은 文學書에서 政治도 經濟도 배울수 있고 藝術에서 古代風俗을 찾아 볼수도 있으며 歷史에서 法律도 理解되는 일이 있으나 또한 一學兩得이라고 할수 있다.

(이) 외같이 速記士는 다들 職務에 從事하는 이들과 같이 讀書를 通하여 自己敎養을 높일뿐만 아니라 同時에 많은 政治家 學者 新聞記者 其他 國內 國外를 通하여 많은 役割을 할 速記錄의 完成에 있어서 重要한 任務를 지니고 있음을 想起함과 아울러 보다 훌륭한 任務遂行을 爲하여 꾸준한 讀書를 勸하여 마지않는다.

(筆者·民議院圖書館長)

斜線派에의 魅力

姜 駿 遠

五種의 길이



一八三四年 獨逸의 「카벨스」는 幾何派의 「피르맹」(英人)보다도 三年 먼저 獨逸 「알라베트」의 筆記體를 分線하고 擴大하여 가명 알기 쉽게 英筆記字로 말하면 「E」아래 그어지는 한 線을 基本書線으로 하여 「E」는 一段文字(小字), 「F」는 위르 뻬친 二段文字, 卽大字로 基本書線 위의 大小字가 있는 것으로 보고 同時 그 書線 아래에도 大小文字가 連記文字로서는 있을수 있다는 假定을 세워서 成功하여 大小字를 上下兩段에 써서 四種 길이의 文字를 얻고 「F」「Z」같은 筆記大體는 結局四段 모두에 걸치는 特大字라는 것을 알아 五種大의 線種을 얻었다.

六形 線

이것은 線의 길이 區分뿐이고 線狀 區分은 얼마나 있을수 있을까 「C」「E」「L」들의 左曲形 「S」「Z」등의 右曲線 「I」「D」「K」「A」등의 直線을 들수 있어 「水」字 草書 같은 線圖를 얻었고 만드시 斜線은 아닐지라도 斜線을 原則으로 하는 筆記體속에 右上向線이 連結線으로 不可缺한 存在가 되고 「K」「X」들의 末筆을 構成하는 右線의 存在 나아가서는 「O」의 圓形들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리하여 音의 頻出度와 連結音의 特殊性 前置詞나 接頭語 接尾語를 制法하여 幾何派의 見地에서 보면 어쩐지 翻數가 많은 것 같아도 筆動에 無理가 없고 從來의 文字와 恰似하다는 點에서 親密感을 느낄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말의 境遇

우리말과 이 斜線派를 外國에서 안나는 完全한것으로 하려면 이 派를 爲한 새로운 子音 母音 받침 乃至는 助詞나 語尾의 頻出度와 頭音과 尾音의 特性等을 考察하여야 하겠으나 于先 뜻있는 同志들 에게 한 動機가 되었 으면 하는 뜻에 서 다음에 試案을 發表한다.

子音形 母音段

別表와 같이 各線形으로는 어느 子音을 取하고 書線段을 母音을 取하여 「가」이 「ㅏ」段에 써지면 「가」가 되고 濃線은 「ㄱㅏ」을 分한것으로 또 正例 加點은 「ㅏ」에 對 (14面에 계속)



내가본 速記士

金相洙



◇速記와 錄音

우리말 速記學術이 解放後 特別히 制憲國會爾來 急速度로 發達되어 十年을 經過한 오늘 速記에 對한 國民의 認識이 높을뿐만 아니라 우리 日常文化生活面에 있어서도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大衆앞에서 講演은 멋있게 잘 하는 사람도 글을 쓰려면 잘 못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速記士로 하여금 速記를 하게 되면 數時間後에 講演內容이 글자로 變하여 雜誌나 新聞에 掲載되어서 그 講演을 볼지 못한 여러 사람이 講演 그때를 앉아서 읽고 알수있는 世代가 되었으니 速記가 우리 日常文化生活面에 얼마나 고마운 存在냐 하는 것은 길게 말할 必要도 없다.

요즘을 各種講演會나 重要會議, 座談會에서 錄音機를 使用하여 講士나 演士 또는 重要發言者의 말을 錄音하는 境遇가 많은데 錄音이란 것은 말을 「메-푸」에 預置하였다가 다시 들을수 있게하는 價値는 있어도 그말을 글자로 고치며면은 速記士의 손을 빌려 速記를 하고 또 이를 翻譯하지 않으면 到底 글자로 變하지는 못한다.

制憲國會爾來 六年동안은 國會에서도 錄音機를 使用하지 않았는데 只今으로부터 四年前인 四二八七年度國會所管豫算에 錄音機購入費가 計上되어 그해에 처음으로 錄音機二臺를 購入하여 暫次使用하게 된 것으로 記憶하고 있다.

國會議員이 議政壇上에서 發言하게 되면 그 發言內容이 늦어도 그 翌日 上午一〇時까지는 速記錄으로 印刷되어 各議員과 各重要機關에 配布되고 있는 現實인데 前日 發言한 議員이 速記錄에 掲載된 自己發言內容을 읽어 보고 發言內容과 相反되거나 또는 誤字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擔當速記士를 찾아서 訂正을 要求하거나 甚히 問責하는 境遇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境遇 擔當速記士가 自記速記에 自信이 있고 正確하다는 것을 議員에게 反證할수있는 唯一한 方法은 錄音機에 依한 對照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翻譯原稿의 正確을 期하기爲한 對照가 必要한 境遇에도 亦是 錄音機를 利用하게 되므로 過去六年동안 國會에서 錄音機를 使用치않는때와 錄音機를 使用하는 現在와의 速記士의 責任問題를 比較해본다면 過去보다 速記士의 責任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할수있는 것이다.

◇國會速記士의定員

國會速記士의 現定員(十一月末現在)은 五十一名인데 이를 制憲國會當時(四二八三年度)의 定員九名에 比하

던 約五倍(四十二名)의 人員이 增加
 되었고 第二代國會當時(四二八六年
 度)의 定員十九名에 比하면 三十二名
 이 增加되었으려 第三代國會末인 四
 二九〇年度의 定員 三十六名에 比하면
 十五名이 增加된 셈이다.

或者는 말하기를 制黨國會때에는
 速記士 九名만 으로서도 能히 國會速
 記錄을 發行할수있었는데 무슨理由로
 只수는 이렇게 많은人員이 必要하게
 되었느냐고 말할수 있을것이나 이에
 對한 重要한 理由로서 한가지 말할수
 있는것은 速記錄의 發行速度 卽 發行
 時間의 短縮인데 制黨國會때부터 第
 二代國會末까지만해도 本會議의 速記
 錄이 팔아서 四, 五日後에 送으면 六
 七日經過한後에야 印刷되어 議員에게
 配布하게 되든것이 只수는 速記錄의
 原稿을 印刷業者에게 手交한後로부터
 送어도 十六時間이 넘는 印刷納本하게
 되어있다. 卽 速記錄原稿가 速記當該
 日의 下午五時에 契約印刷業者에게
 手交되며는 그 翌日 上午 九時以前에
 速記錄이 印刷納本되고 上午一〇時本
 會議와 同時에 議員에게 配布되어서
 前日 本會議의 速記錄을 읽을수있게
 되어있는것이다.

또 한가지 重要한 理由로서는 第二
 代國會末까지만해도 各分科委員會서
 特別한 境遇外에는 速記를 하지않고
 있었는데 只수는 各分科委員會에서
 모두 速記를 하고있으며 速記錄도 本
 會議速記錄과 마찬가지로 順調로하

發行되고있다. 특히 各分科委員會에
 서 豫算審議를 할때나 國政監査를 施
 行할때 또는 隨時로 構成되는 各種特
 別委員會가 있을때에는 現在의 速記
 士定員 五十一名으로서도 손이 不足
 할 程度로 速記士의 役割이 重要하게
 된것이다.

國會速記士의 定員과 增員狀況 및
 國會速記士現定員의 年齡別人員을 調
 査한바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1) 國會速記士의 定員과 增員狀況

四二八四年四月一〇日現在의定員 九名
 四二八六年六月一日現在의定員 十九名(一〇名增員)
 四二八七年七月一日現在의定員 二十二名(三名增員)
 四二八八年十一月一日現在의定員 三十六名(十四名增員)
 四二九一年一月一日現在의定員 五十一名(十五名增員)(現在)

(2) 國會速記士의 級 別定員 (四二九一年十一月末現在)

三級甲類級速記士의定員.....四名
 三級乙類級速記士의定員...二十八名
 四級速記士의定員.....十九名
 計 五十一名

(3) 國會速記士現定員의 年齡別人員

二十二歲 六名 二十三歲 十名
 二十四歲 六名 二十五歲 五名

二十六歲 一名 二十七歲 四名
 二十八歲 없음 二十九歲 一名
 三十歲 五名 三十一歲 七名
 三十二歲 一名 三十三歲 二名
 三十四歲 없음 三十五歲 二名
 三十六歲 一名 計 五十一名

◇ 國會速記士의報酬

國會速記士의報酬는 現在國會一般職公務員이 받는報酬外에 技術手當即速記士手當으로速記士每人當月五,〇〇〇圓式을 더받고있으며 最低級速記士(主로 新規採用者가 많은)의級號는 四級十三號이고, 이 最低級者의 月報酬額은 速記士手當을 包含하여 金五萬八拾貳圓이며 最高級速記士

의 級號는 三級一號(制黨國會때부터 永年勤續係長速記士)인데 이 最高級者의 月報酬額은 速記手當을 包含하여 金七萬壹千參百八拾貳圓이고, 最高俸을 받는 速記士의 月報酬額과 最低俸을 받는 速記士의 月報酬額과의 差는 月貳萬壹千參百圓이 된다.

國會速記士의 待遇가 過去보다는 多少 改善되었다고 볼수있으나 現在 이 報酬로서 充分하다고 할수는없음으로 國會速記士의 待遇改善의 捷徑으로서는 速記士手當引上等이 있으니 速記士여러분의 加一層의 努力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國會速記士의 級別現報酬明細는 다음과 같다.

國會速記士의 級別月報酬額明細

級別	本俸	戰時手當	特別手當	速記士手當	月報酬計
三級甲類(三級一號)	882	52,000	13,500	5,000	71,382
三級乙類(三級八號)	714	42,200	12,000	5,000	59,914
四級(四級一號)	666	39,400	9,000	5,000	54,066

(11面에서 계속)

(筆者=民議院總務課長)

한 「ㅏ」나 「ㅑ」로 받침은 字尾加符로 하는데 于先 일곱받침의試案이다.

助詞와 編字法

助詞나 語尾는 末字尾를 前下後로 三區分하여 前位는 「가, 는, 로, 와」等 主格助詞, 尾位는 「을, 에, 의」等 與格助詞, 後位는 用言語尾「는, 르서」

等으로 또 「成功」이나 「直刻」과 같은 「O+O」「ㄱ+ㄱ」이 접받침은 上下二重으로 쓰되 前者는 交叉 後者는 接觸으로 處理할수 있을 것이다. 文例는 「사람이 게 아너오르고 山만 높다 라더라」이다. (筆者·韓國일보地方部長 前國會速記長)

速記普及에의
새로운 構想
鄭 鍾 冕



筆者는 六·二五
動亂時 軍服務中 職
責上 美軍과 恒時
자리를 같이하고 約
五年間 事務를 擔當
한일이 있다.

그동안 우리 韓國
軍이 長距離電話(美
軍電話를 借用함이 常例였음)로 通話
할時 高喊 辱說 反覆 復唱에 長時間
을 要한뿐만 아니라 周圍사람들이 어
떠한 內容의 通話를 하는가를 다 알
게되고 軍事秘密保持란 口頭禪에 不
過하다는 感을 恒常 느껴왔던 것이다.
이와 對比하여 美軍側通話는 조용하
고 또 어느 特殊通話에 있어서는 一定
期間 速記訓練을 받고 特殊番號를 賦
與받은 兵士 相對方과 通話를 하는에
相對方도 亦是 같은 特殊番號의 所有
者라 通話는 迅速하며 正確하며 秘密
保持가 잘 履行되어 他人에 弊를 끼
치는 일이 稀有하였다. 이러한 特技
番號를 賦與받은 兵士中에는 黑人出
身도 相當한 數字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上官이 무슨 公文草案
指示事項等을 公文化하며 할時는 이
들 書記役의 兵士들에게 要旨만을 口
述하면 그兵士는 秩序整然한 公文體
裁로 바꾸어 能熟한 솜씨로 打字하였
다. 그迅速하고 正確하고 能率的인
事務執行을 吾人은 눈이 評價하였던
것이다.

即 그들은 一面 速記訓練을 받고 他
面 書記로서 必要的 事務執行能力과
能熟한 打字技術을 習得하고 있었다.
이 打字된 書類는 暫時後에 複寫되어
數十 數百枚의 公文으로서 下達되는
것이다.

卑近한例로 駐韓美國大使館에 가서
外信을 受信하는 場面을 보면 速記訓
練을 받은 受信人이 受信과 同時에 打
字하고 있는 場面을 흔히 볼수있다
그迅速하고 正確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感嘆을 不禁케할 程度이다.
勿論 文字構造 機械發達 速記術의 發
達等 여러가지 惡條件도 있겠지만 우
리 韓國實情으로 보면 一旦 速記하여
解得하고 淨書되기까지는 相當한 時
間的 餘裕가 必要的이며 相當한 非
能率的인 過程을 밟아야 함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每日 우리 國會에 出入
하는 記者들의 取材 및 通報狀況을 보
면 十分以上의 時間이 消費되고 지루
한 過程을 밟고있음을 볼수있다.

이러한 諸事實도 미루어볼때 吾人
은 速記의 普遍的인 普及를 痛感하
며 이 普遍的인 普及와 機械化가 이루어
지면 우리 周圍의 事務執行이 얼마나
能率的인 까 하는 感에 사로잡히는수가
許多하다.

吾人은 速記에 對한 知識은 全然 없
고 그技術의 發達조차 全然 알바없으
나 다만 速記의 普遍的인 普及와 機械
化를 提唱하고 싶다.

勿論 이에 是 許多한 難關이 가로놓
여 있을것이나 吾人은 이 難關을 克服
하여야만 速記의 普遍的인 普及와 機械
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筆者·民議院法制調査課長)

☆ ☆ ☆
☆ ☆ ☆

似而非速記

糾彈

金 鎮 基



「速記」라함은 他人의 言語나 自己의 意思를 그 速度가 緩急을 莫論하고 卽席에서 한마디도 빠짐 없이 完全하고 正確하게 記號文字로써 記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最少限度 十分間 三千 音字以上을 記錄할수있는 實力을 具備하지 않으면 速記士, 卽 速記의 能力者라고 일컬을수 없는 것이다. 왜그러나 하면 사람의 發音의 速度가 늦은 사람은 十分間에 千八·九百音字로부터 빠른 사람은 四千五·六百音字(一秒에 七音字以上)이라는 高速度로 發音을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上述한바의 速記能力을 具備함에 있어서는 그 前提로서 速記學術(速記法式)이 如何히 構成되어 있느냐 하는것이 絕對的인 要件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卽 複雜多岐하게 驅使 應用할수 있는 言語의 形態를 極히 限定된 「線」 「點」 「位置」 등을 要素로한 記號文字로 表現하여야만 되는 速記學術의 構成이란 것에 速記를 爲主로한 記號文字의 徹底한 研鍊琢磨로써 그 記字의 性格을 날날이 覺醒하여 가지고 이것을 手記의 頻度數에 따라서 效果의 爲로 完全히 合致시키는 同時에 둘째로 누구나 배워서 알수 있는 卽 學的인 價値性의 發揮과 字體의 體系를 科學的으로 整然하게 構成하여 一見明確하게 되어 있는 法式이 아니고서는 十分間 三千音字以

상의 高速度를 記錄해 낼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 沒知覺한 人士들은 이와같은 學術面에 對한 專門的인 研究나 考察은 姑捨하고 實用面에 秋毫의 經驗도 없으면서 一般社會에서 速記에 대한 眞正한 理解가 不足함을 奇貨로 無秩序한 記號文字의 羅列만으로서 卽 似而非 速記法式을 가지고 學院의 看板을 내어 걸뿐만 아니라 더욱 可笑로운 行爲는 特典이라는 美名아래 「我國唯一〇〇部 委屬 速記士養成機關」 이니 「〇〇院 書記局 委屬 速記士養成」 이니 「卒業後 就職 轉旋」 이니 「資格證 授與」 이니 等의 미끼를 내어 걸고 年中無休로 學生募集 廣告를 新聞에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委屬을 하였다는 〇〇部는 自己部의 傘下機關에서 養成해내는 速記士 自體도 有效適切히 利用하지 못하면서 이와같이 似而非學院에 또 委屬하였다는 事實은 도저히 理解할수 없는 行政措置라 아니할수 없으며 卒業後에는 就職을 轉旋한다 하나 그들의 過去 數年間의 業績으로부터 有資格者를 實社會에 라도 輩出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確實히 이 法式의 似而非性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보겠고 이는 純전히 學生을 끌기爲한 欺瞞行爲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은 速記界에 從事하고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은 資格證을 授與한다고 하나 速記士가 一種의 技術者인 以上 所定의 實力을 具備함이 先決問題이지 더욱이 公共機關도 아닌 私設學院에서 無責任하게 發行되는 資格證이 무슨 價値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말 速記가 아직도 一般社會에 널리 普及되지 않은 이때이니만큼 實用價値있는 훌륭한 速記法式이 많이 나와서 眞正한 記錄文化에 이바지가 되기를 期待하는 마음 으며 一般人의

速記에 대한 認識이 時急히 要請되는 바이다.

그와 反面에 前述한바와 似而非 速記法式을 가지고 空然히 젊은 學徒의 千金같은 時間의 虛費와 經濟的 濫費와 精神的 苦痛을 加해주는 不誠實한 學院經營者들의 反省이 있기를 期待

하는 바이며 또한 私設學院의 認可監督機關인 市 學務當局에서는 이러한 社會에 惡弊만을 助長하고있는 一面에 대해서도 留意하여 適切한 行政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筆者·民議院速記課第3係長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教授)

速記協會略史

- 一. 創立 및 名稱 檀紀四二八八年十月十三日創立, 大韓速記學術協會(檀紀四二九〇年四月定期總會에서 大韓速記協會로 名稱變更)
- 二. 機構 및 任員 (初代) 名譽會長=趙瓊奎 會長=張基泰 副會長=金天漢 理事長=張惠根 理事=十三名(總務部, 文化部, 研究部, 審査部 事業部)
 (二代) 名譽會長 會長, 副會長=留任 理事長=金鎮基(新任)(總務, 文化, 研究, 審査, 事業) 理事=十三名
 (三代) 名譽會長 會長, 副會長=留任 理事長=金星漢 各部理事=十三名(總務, 文化, 研究, 審査, 事業)
 (四代=現在) 名譽會長=李在鶴, 會長, 副會長=留任 理事長=鄭源道 總務部=徐萬福, 李東一 文化部=金星漢, 金仁寧, 安敏鍾, 研究部=尹炳葛, 金顯祐, 審査部=李圭洪, 金今勇 事業部=韓奎勳 金泰宣, 崔孝燮(以上 理事=十三名) 監事=金鎮基, 張惠根, 韓奉永
- 三. 參加法式 逸波式, 高麗式, 서울式, 中央式
- 四. 加入會員數 初代={正會員 九十五名 準會員 二十名} 二代={正會員 七十名 準會員 二十名}
 三代={正會員 六十五名 準會員 五十六名} 四代={正會員 六十八名 準會員 五十七名}(現在)
- 五. 定期事業 (二代) ▲檀紀四二八九年八月七日-八月二十一日 高麗速記技術學院에서 高·大學生及一般人五十五名에 대한 第一回夏期無料速記講座開催(高麗式)
 ▲檀紀四二八九年一月三十一日速記文化創刊號發刊
 ▲檀紀四二八九年十月一日速記文化第二號發刊
 (三代) ▲檀紀四二九〇年七月二十三日-八月二十日 鍾路區校洞國民學校에서 高·大學生 및 一般人百三十七名에 대한 第二回無料夏期速記講座開催(逸波式)
 ▲檀紀四二九〇年四月二十五日 速記文化第三號發刊
 ▲檀紀四二九〇年八月十日 速記文化第四號發刊
 ▲第一回速記競技大會
 訂時 및 場所=四二九〇年七月二十一日(土)午前十時三十分於文總會館
 (四代=現在) ▲檀紀四二九一年七月二十二日-八月二〇日 市內德壽國民學校에서 高·大學生 및 一般人五十名에 대한 第三回夏期無料速記講座開催(서울式)

實記主義에서
修文主義方向으로

=速記錄도 文章이라면=

韓 奉 永



◇말은 文章이
아니다

우리 速記士가 누구나 느끼는것은 發言에만 充實하여 機械的인 實記主義만을 固守할것이나? 또는 어느 程度의 修文을 加하여 構文上의 體裁를 가칠것이나? 하는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發言에만 充實하였을때 그 速記錄이 印刷되어 나오면 모르는 이는 速記를 잘못했다고 하고 發言當事者까지 自己가 말을 잘못 해 놓고도 그 責任을 速記士에게 지우려고 하는때가 많다. 이런것이 速記士만의 苦惱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말은 文章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끝이 들지않는다.

누가 무어라든 붓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입으로 짓거리는 말인바에 그 말을 하는이나 듣는이는 모르고 지나기가 일수지만 우리가 글로 고쳐놓고 보면 놀랄만큼 構文法으로 보아 그

文脈이 不完全한것이며 간혹은 正反對되는 말이나 錯誤된 말까지도 發見되곤 한다.

그 證據로 國會速記錄을 뜯어보면 알수 있는것인데 이런것을 아는 몇몇 議員은 자기 말이 잘못 피였더라도 어느정도 修文을 加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이도 있다.

실상 속기를 몇했동안 해본이는 다 아는바이지만 어떤이의 말은 말로 들을때는 그런듯하고 條理가 있어보이나 글로 고쳐놓고보면 무슨말을 한것인지도모지 알아볼수 없는이가 있다.

이런것으로보아 우리는 이제것의 낡은 實記主義만을 固守할것이 아니라 벌써 議政十年이나 좀 外國을과같이(美國, 日本, 佛國에서는 이미 修文主義를 採擇한지 오래라고 한다)그 뜻이나 「뉴앙스」를 變更하지 않는 限의 修文主義 方向으로의 轉換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바이다.

◇修文主義의 精神

修文的인 反文이란 事實 좀 能熟한 經驗을 要하는 것이지만 「速記를 한다」는 本質이 自己가 理解할수 있는 말을 他人이 發言하는것을 文字化하는 것이니 發言者 乃至는 成文을 읽는 第三者에게 理解가 가던 되는것인즉 너무 甚한간에 甚한 修文主義를 採擇할 必要는 없지만 漸進的인 前進의 一步로서 우리 國會速記錄에서도 다음에 列擧한바와 같이 議員의 無意味한 同意反復이나 誤發한 말을 修正하

기 위한 改發言 같은 것들은 읽는데 混亂을 일으키기 쉬우니 削除해도 좋을 것이고, 또한 速記錄도 文章이라면 그 形式的인 部分도 無親할수 없는 것이니 文法的인 修文과 語順의 原則같은것도 따라야 할 것이다.

◇ 修文要領

速記錄이란 發言者가 내세운 自己主張을 成文化한 것이니 우선 그 演述者의 뜻을 精確히 把握하여 그 뜻에 어긋나지 않을 程度로 다음에 例示한 것과 같은 內容修正은 加할수있다.

(1) 強意아닌 同意反復이나 剩餘語 = 「여러분! 여러분은……」같은 強意가 아니고 「어제 昨日에……」나 「서울驛前앞에서」 같이 같은 뜻을 反復하여 말할때는 그 一部語를 削除하고

「그럼에도 不拘하고……」그런데 우리는」의 경우의 「그런데」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信任하던 그가」의 경우의 「믿고」는 普通의 경우 剩餘語로서 削除해도 좋다.

(2) 改發言이나 誤發言 = 「우리가 野黨側의…… 아니 與黨側의」의 경우는 뒷말을 「與黨」으로 고치며 「아니」以下는 削除하고

發言者가 不注意로 誤發言한 固有名詞나 數詞도 고쳐 쓴다.

(3) 語區間의 不明瞭語 = 「直接稅에 關係 없지만」에서 稅名이 아니라 「直接」이 副詞인 경우는 補正하여 直接으로」라고 副詞다운 表現을 해 놓을것.

(4) 俗語나 卑語 = 정간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은 特別히 記錄할 意義가 없는限 精簡한 言句로 修正한다.

例, 「저 자식이」= 「저 사람이」

「해설랑은」= 「해서」

「이놈이 決定되면」= 「이것이 決定되면」

「그래선두풍」= 「그래서」

(5) 言方과 文法的인 不正 = 사투리는 標準語로 고쳐쓰고 文法的인 不正은 이를 校正한다.

例, 「남았는것이」= 「남은것이」

「그렇기 뻬세」= 「그렇기 때문에」

「고 문젠」= 「그 문젠은」

「이건네」= 「이것인데」

(10) 語順의 原則 = 「사람이 밥을 먹는다」를 여섯가지로 語順을 바꾸어 말할수 있는 우리 말이라는 하지만 詩文이나 特殊한 경우가 아니면 「먹는다 사람이 밥을」이라고 쓸수 없는 것이니 모든 成文에 있어 우리말 語順의 原則을 쫓아야 할 것이다.

以上의 例示外 具體的인 例를 들자면 限이 없겠으나 우선 생각남대로 추려 보았는데 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依例的으로 實記主義를 떠나 修文을 加해온 例 몇가지를 더 찾아보고 좀더 具體的인 것은 다음機會로 미루고자 한다.

(1) 不知不識에서은 誤發言 = 「挑戰」을 「추견」으로 「相殺」을 「상살」로 發言者가 不知不識해서 誤發言 했을때에는 이를 고쳐 썼다.

(2) 發言者의 自己紹介 = 「××長官 ○○입니다」 「×××議員입니다」같은 自己紹介는 削除했다.

(3) 可否表決의 削除 = 「可하신분 손 드세요…… 내리세요, 否하신분 舉手하세요…… 내리세요」의 可否表決은 그 全語를 削除하고 「(舉手表決)」로 處理해 왔다.

(筆者·速記士 前議政速記學院長)

圖書館의 語義와 그의 現代의 性格

任 石 宰



筆者는 國會圖書館에 勤務하게 되자 무엇보다도 먼저 圖書館이란 名稱의 語義에 對한 概念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關하여 興味를 가지고 알고저한바 있었으므로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는 同時에 그의 現代의 性格에 言及하고자 한다.

圖書館이란 말을 簡單히 要約하여 說明한다면 學術文化에 關한 모든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 運營함으로써 學術文化의 向上 發展을 助長하는 機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近代의인 定義인 것이고 옛날에는 圖書의 貯藏所 卽 單純히 圖書를 保管하는 場所로 알려졌는 것이다.

그것은 當時 圖書館의 有機的인 活動面을 보지 않은 定義였고 또한 當류의 機能, 亦是 그 程度를 훨씬 超越하지는 못하였다 한다. 그러나 圖書의 保管場所로서 만이 아니라 如何한 方法으로 利用者들의 慾望에 相應하여 學術文化 向上에 도움이 될 수 있는나 運營問題가 또한나 重要한 使命으로 認識되자 學者들은 圖書館을 解義하여 「많은 重要한 圖書를 蒐集하여 各人의 知識慾에 相應하여

그 要求하는 圖書를 보다 더 經濟的으로 研究利用시키는 곳」이라 하였는 가하면 「公衆 또는 公衆中의 어느 特殊人 또는 會 또는 會에 類似한 機關의 會員의 利用을 爲하여 多數의 圖書를 收藏하는 建物 一室 或은 數室 또는 多數의 圖書를 保管하는 公設 或은 私設의 建物로서 이를 利用하고자 하는 希望者에게 所要의 圖書를 供給하는 것을 任務로 하는 곳」이라고도 하였고 또는 이를 整理하여 「多數의 有益한 圖書를 蒐集保管하고 使用者의 趣味 能力에 應한 所要의 圖書를 供給하여 보다 더 經濟的으로 이를 利用시키는 것을 任務로 하는 곳」이라 말하였다.

如何든 이들 定義는 圖書館이라는 것이 單純한 圖書의 保管所로서의 任務만이 아니라 利用者들에게 有效 適切하게 利用 시킬수 있는 方法을 積極的으로 講究하고 實踐하는 奉仕의 任務도 있다는 現代의 機能을 해서 說明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것을 圖書館의 세가지 責務로 내건은 일도 있다. 卽 (1) 圖書를 整備하고 (2) 求하는 사람에게 助力을 주고 (3) 讀者에 關心을 이끄기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은 圖書를 蒐集 保管하는 場所로서의 圖書館을 말한 것이고 (2)는 利用者의 自己教育에 助力해주는 奉仕의 機關임을 (3)은 이러한 目的을 有效 適切히 活用할수 있도록 積極的인 方法을 講究하여야 한다는 任務임

은 말한 것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圖書館이라는 語義를 어떻게 理解하여야 하며 그 現代的인 機能 乃至는 性格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더 整理해 보기로 한다.

今日の 圖書館은 일즉이 말한 圖書의 保藏 機能으로서 圖書 記錄 視聽 覺資料 및 其他 資料 등을 蒐集 整理 保管하는 方便 一般國民 (또는 特殊 對象者)에게 教養 參考 調查 研究 및 「리크레이션」 등의 資料를 積極的으로 提供함을 任務로 하는 奉仕的 乃至는 教育的 施設이라는 것이다.

1943年 美國 圖書館協會가 刊行한 「戰後의 公共圖書館 基準」에는 圖書館의 機能으로 教育 情報 美的鑑賞 調查研究 「리크레이션」 등의 5個項을 들었고 이것이 近代 公共圖書館으로서 이擔當하여야 할 任務로 되었다 한다 이것은 積極的인 運營面에서 본 機能이며 古代의 그것이 變化 乃至는 擴大 過程을 通하여 앞으로의 指向하는 바를 要約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附言하고자 하는

것은 現代 各國 國會 圖書館들의 機能의 擴大이다. 그것의 性格이 特殊하기는 하지만 圖書館內에 法制調查局 또는 그와 비슷한 名稱으로 尤大한 調查機構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積極的인 活動이 展開되고 있어 各 分野에 健全 諸般 資料를 利用者들의 要求에 應하여 提供하는것은 勿論 要求될 것을 豫測하고 自發的으로 資料의 蒐集, 分類, 分析, 翻譯, 索引, 摘錄, 編輯, 報告等 그리고 其他 必要한 準備等을 하므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奉仕的 任務를 그 使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現代的 任務를 그대로 實證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圖書館이란 이름은 昔今을 通하여 同一하지만 그 機能은 擴大되었고 이에 따라 그 性格은 變化되었으니 우리들은 여기에서 圖書館의 性格이 消極的인 圖書 保管所로부터 積極的인 活動分野에 그 機能의 領域을 擴大시킨 奉仕的 乃至는 教育的 文化 施設로 理解되고 있음을 말하여둔다. (筆者·國會圖書課長)

贊助者名單(第一回速記展示會·第二回速記競技大會)

金成坤	議員	金一封	李龍範	議員	金一封	俞鳳淳	議員	金一封
李榮彥	議員	"	李源長	議員	"	河泰煥	議員	"
趙淳	議員	"	崔容根	議員	"	孫錫斗	議員	"
田萬重	議員	"	李益興	議員	"	鄭商熙	議員	"
尹炳求	議員	"	鄭文欽	議員	"	具泰會	議員	"
林次周	議員	"	朴忠植	議員	"	李東根	議員	"
朴相吉	議員	"	朴哲雄	議員	"	閔寬植	議員	"
安龍大	議員	"	朴永教	議員	"	金載坤	議員	"
徐漢斗	議員	"	金相道	議員	"	金喆安	議員	"
朴賢淑	議員	"	民主黨	議員部	"			

大韓速記協會會員名單

姓名	所屬	派式	姓名	所屬	派式
金 鎮 基	國會事務處	逸波式	孫 弘 基	"	逸波式
鄭 源 道	"	"	黃 圭 鎮	"	"
張 惠 根	"	"	李 永 實	國會事務處	高麗式
韓 奎 勳	韓國銀行	"	金 今 勇	"	"
李 圭 洪	國會事務處	"	金 顯 祐	서울特別市議會	逸波式
盧 允 鎮	"	"	金 永 善	國會事務處	"
楊 佑 鎮	"	"	洪 乙 姬	서울特別市議會	高麗式
宋 貞 浩	"	"	崔 孝 燮	"	"
② 金 宗 弘	"	"	徐 平 吉	江原道議會	逸波式
崔 英 泰	"	"	柳 智 永	서울特別市議會	高麗式
金 哲 淳	"	"	姜 萬 根	國會事務處	逸波式
金 允 洙	"	"	黃 重 秀	速記學院	高麗式
尹 壽 鉉	"	"	李 甲 熙	忠南道內務局	逸波式
徐 萬 福	"	"	皮 光 備	江原道議會	"
朴 貴 順	"	"	金 泰 宣	國會事務處	"
鄭 秉 淑	"	"	金 永 浩	"	"
金 仁 成	政 黨	"	崔 龍 夏	"	"
全 百 坤	國會事務處	"	朴 保 和	"	"
安 仁 榮	"	"	徐 秉 遇	"	"
韓 尹 奉	"	서울式	李 相 烈	"	"
李 炳 永	"	"	朴 殷 煥	"	"
李 東 淳	"	中央式	梁 基 興	"	"
安 鐘 漢	國會特別警備隊	"	金 鐘 壽	"	"
李 星 柱	國會事務處	高麗式	河 煥 植	"	"
李 廷 鉉	"	逸波式	趙 大 東	"	"
李 弘 煥	"	"	尹 炳 直	"	"
李 一 重	"	"	申 世 華	"	"
崔 雙 明	"	"	全 海 成	"	"
金 明 明	"	"	李 浩 龍	韓國銀行	"
崔 在 彬	"	"	吳 玉 祥	"	"
			李 海 載	朝鮮日報社	"
			尹 明 然	現在中華民國留學中	"
			全 洙 東	農業銀行	"
			姜 泰 基	國際通信社	서울式
			李 德 鎬	國際通信社	逸波式
				馬山成人校	高麗式
				陸 軍	"

特輯

第一回 速記展示會

(1958. 10. 1 ~ 58. 10. 7)

重要目次

速記略史.....(24)

添加語速記法에 의構想.....(26)

手筆速記와 機械速記의

長短點.....(29)

各||法||式||紹||介.....(31)

速記와 文化.....(36)

各議員發言速度.....(36)

速記土職制對照.....(38)

반어쓰기 어려운 理由.....(42)

◀附•各種速記關係統計表▶

◇速記略史◇

古代로부터의 發展過程은 다음과 같다

一. 略記法時代

西紀前五三年(二千余年前) 古「로마」인「타이르」Tiro (로마의 大雄辯家「키케로」Teluis Cicero의 弟子)가 自己先生의 演說集을 著述함에 있어서 自身略記法을 考案記錄하여 有史以來最初의 速記學的史集을 傳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르」의 略記法은 西紀七百年 西「로마」帝國滅亡時까지 使用하다가 後 十六世紀에 이르기까지는 歐洲에서도 速記에 關한 것은 全히 波却되었었는데 三百六十余年前(西紀一五八八年) 英國의 「보타이드」라는 考古學者가 이 「타이르」의 事實乃至 略記法을 探知한바 있어 이에서 暗示를 얻어가지고 드디어 「記號字」라는 著書를 發刊한데에서 다시 速記의 研究가 始作되었다.

그後 十七世紀에 들어가

一六三九年에 「위리스」 Willis의 記號略記法

一六七二年에 Wo Moson의 新速記法

一七三七年에 Thomas Gurney 氏等을 爲始하여 여러法式이 連하여 發表되었으나 그 모두가 略記法의 域에서 벗어나지 못한 卽 現速記學으로의 轉變 誘導時代에 屬하게 된다.

一. 符號筆記時代(速記時代)

이時代는 十九世紀以後 現今을 包含한 後期時代로서 이때까지의 古文字의 部分的利用考案에 不滿한 略記法時代에서 一躍 大轉換하여 全히 새로운 構成아래 點과 線 位置等의 要素를 利用한 純全한 符號的筆記時代를 이룬다.

西紀一八三七年에 英國人「아이

작·필맨」Isaci Pitman은 「速記의 速記法」卽 「超速記法」이라는 實로 發音卽席 完全記錄法을 講述한書籍을 世間에 發表했는데 이것이 卽 符號筆記時代의 初出發이었으며 速記의 速記다운 眞價를 遺憾없이 發揮한 第一步를 내디딘 것이다.

以後 「필맨」式 超速記法이 各界各層에 普及되었고 또한 各國의 速記法案出이 모두가 「필맨」式에서 「힌트」를 얻어 急速의 으로 進展을 보나 東洋에서는 完全速記法의 出現이 日本에서 西紀一八八二年(明治十五年)에 田鎖綱紀式 中國에서는 光緒二十二年에 「傳音快字」라는 名稱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八·一五解放 以後에 完全速記法이 發表되어 普及되어 온 것이다.

다음에는 各國의 發案者를 뽑아보던 아래와 같다.

英 國

1958 Baich

不明 John WiKis

1639 Shelten

1672 W. Moson

" Byrcm

" Toylar

" Maver

" Samuel Yaylor

1817 Lewis (折)

1837 Isaci Pitman (幾)

1858 Craham

1885 Cuass (折)

1923 Dewey

獨 逸

不明 유그아리스텔 (最初發案者)

1796 Moschgeul

1837 C:telsh:erger

1847 Wilhelm Stole
 1898 Kaebing
 Faulmann (折)
 伊太利
 不明 Hnee
 " Tiposten
 1809 Amauti (幾)
 1872 Donye (幾)
 美 國
 不明 Lindsley
 1888 John R. Gregg
 佛 蘭 西
 1651 Jocques Cossurb
 1834 Dugarbin
 不明 Connen de Prepean
 " Hamile Puploye
 " Buisso
 " Conton
 " Dupont
 " Dupuslogi (幾)
 " Aime Paris(#)
 " Paevst delaunay(#)
 蘇 聯
 不明 Kritoche
 1858 Jvanine (幾)
 西 班 牙
 1803 Merti
 1816 Ginssta
 瑞 典
 1929 Okana (幾)
 中 國
 1887 蔡 錫 勇
 1893 尹 炳 耀
 1921 張 邦 永
 1922 蔡 炳 章
 " 楊 炳 助
 1923 張 兆 雲
 1924 汪 洽

1926 徐 氏
 1927 趙 士 秋
 日 本
 1882 田鎖鐸記 (幾) (早稻田式)
 1887 毛利高範 (草) (毛利式)
 1912 中根正親 (草) (中根式)
 1926 川口 涉 (幾) (早稻田式)
 (日本은 代表的인것을 例舉했음)

위의 一覽表中에 (折) (幾) 라함은 速記筆法을 세가지로 分類한것을 表示한것으로 첫째 幾何線派 둘째 草書派 셋째 折衝派이다. 이세가지 性能을 살펴본다면

一. 幾何線派—이것은 幾何學의 原理를 引用한것으로 正円形을 各分해서 延短의 方法 或은 濃薄의 方法으로 文字의 變形을 하는것이요 (英의 Pittman式 같은것)

二. 草書派—이것은 알파벳 筆記體와 同一한 方法으로 上向과 下向하는 斜線의 法式 (美의 Gregg 式 같은것)

三. 折衝派—이것은 幾何線派와 草書派의 長點을 綜合檢討하여 採用한것

等으로서 이세가지 流派에 該當되는 速記法은 우리韓國에서도 能히 찾아볼 수있고 또한 外國의 各速記法을 檢討해보면 이에依하여 모든 速記文字가 構成되고 있는것을 알수있게된다.

一. 發案時代

韓國速記法의 發生과 發達過程은 그다지 詳明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健實치도 못하였음은 自他가 肯定하는바이다.

모든 發展史가 어떤 「創案」에 對한 뒤바침 「繼承」 「普及」이있어야 한 水準에 到達하는것인바 우리나라의 速記는 發案後에있어 環境의 「不自由」로 말미암아 長時 挫折되었던것이다.

國內速記史實—우리速記史는 近代

우리政治的事實에 依據해서 解釋된다
고 볼수있으니 侵略과 解放 이가운데
서 우리速記는 發生하고 實用化되었
는데 이것을 그發達史的으로 考察해
보면 두가지 事實을 發見할수있다.
即 速記法의 發達이라고하면 發生 普及
及 繼承 이세가지要素를 말하는데 우리
速記法中에는 이要素에 合理的인것
과 그렇지못한 두가지것으로 分類할
수있는데 그前者는 日帝時에 發案된
速記法을 말할수있고 後者는 解放以
後 實用되고있는것을 말할수있다.

그러면 여기에 前者를 斷的으로 要素
의 不合理 法自體의 未完成이라고
만 말할수없음은 아시다싶이 그當時
自由로운 環境에서 나타나지못하였기

때문이요 不垣히 자라났다그하면 能
히 實用되고 繼承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前者를 大別하여 日帝三十六年
間의 史實을 先覺期 發表期 萎縮期의
三期間으로 나눌수있다.

先覺期라함은

一九〇九年에 「朴如日」氏가 慶北
出生으로 一九〇四年에 韓國을떠나
「하와이」로 건너가고 一九〇九年에
朝鮮速記法을 創案하여 當地에서 發
刊되는 韓國新聞 「신한민보」에發表
또한 아울러 己未獨立運動이 있을뒤
一九二三年에 亡命地上海에서 金〇〇
이 出刊한 文法書 第二附錄에 실린 「날
적 말적기」(날게 卽 빠르게 적는다는

添加語速記法에의 構想

語法構成으로 보아 添加, 孤立,
屈折, 抱合, 輯合의 分系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말은 添加語인것이 分
명하다.

그러면 添加語에는 添加語다운
速記法이 構想되어야 하는데 먼저

A. 助詞特立~助詞나 語尾가 頗數
히 結合 分離를 거듭하는데 이경
들이 主格 客格 與格等 모든 體
言, 用言을 生死 與奪하면서 活
用되는것이니 이들의 特殊한 記
錄方式이 서지 않으면 能히 우리
말 速記法을 完成했다고 볼수는
없는것이다. 또 可及의 이들은
이들앞에 쓰이는 主詞들과는 形
態도 달라야함은 勿論이다.

B. 母音調和~「똑딱똑딱」[넘어진
다 높아져서] 「가, 나」의 陽音
과 「ㄷ, ㄱ」의 陰音의 調和는 法
으로서 構想되어야 한다.

C. 末音規則~「딱다(拭) 따오너」
「없다 없으니」들은 末音이므로
일어나는 變化는 構法의 一端이

되어야 할것이다.

D. 「ㅈ, ㅊ, ㅋ, ㆁ, ㅅ, ㅆ, ㅍ, ㅍ」
……中音의 通音性~「향부 행복」
둘다 알아 들을수있는 程度의 誤
發音인것은 이들의 通音性을 달
한것으로 速記法에 考慮되어야할
것이다.

E. 「ㄱ, ㆁ, ㄷ, ㄹ」…硬音의 通音
性~같은 「ㄱ」音
中 下左는 「ㄱ」下
右는 「ㄴ」으로 알
고 있는만큼 初音
中의 通音을 입을
알수있어 有用한
것이다.



助詞 語尾	이 는 의 을 고 가 온 에 들	로 게 지 와 예 오 과 의 르	에 면 며 서 도 서
頻 出 量	六六六五二 九四十六六 二四九六十二	一八八七六 九九二五五 二	六四四四三 五二一十九

뜻에서取한것) 등이 우리말 速記法創案의 先驅를 친것이되니 이時期를 先覺期라고 보고

이어서 一九二五年에 方翼煥 李源祥兩氏의發案 一九二七年에 金한터氏의發案 同年에 嚴正友氏의發案이있었고 一九三五年에 姜駿遠氏의一案이 東亞日報에發表된것이있었다. 이때를發表期라고 볼수있다.

그뒤에 이어서는 우리말 新聞紙의停刊處分中日戰爭 第二次大戰을經하는동안 그發案活動조차 中斷되었던것이다.

이와같이 여러식이 있었으나 各自各處에 孤立한체로 되어져서 共同研究의 機關과 機會가없이 結合的인 한 흐름과 發案의立地가 없었던것이다.

다음에 解放前까지의 움직임을 文獻上에發表된것을 結合하여 보면 다음과같다.

○ 一九〇九年 朴如日氏가 美洲하와이에서 朝鮮速記法을發案「시카고」에서 法의講義와 美國에서發刊되는 朝鮮新聞「신한민보」에發表하였다. 뒤이어 一九二〇년에 印度 南쪽에「마인」이라는곳에 移住하여 書冊出版에着手하였다가 一身上事情으로 中途에서 中止하였다.

그의 速記法은 幾何線派이며 單複한一點에서 始源하여 文字를 構成한다. 卽一點이 成長하여 한平直線을 이루고 [—] 이點이 曲하여 弓線을 이루고 [()] 이것이 또 長短과 濃淡으로 變하여 文字의 變化를 이룬다.

○ 一九二三年 金○○ 亡命地上海에서 出刊한 文法書 (김도조선말본) 第二附錄이 「난저」의 이름으로 英의 一五九七年의 「부라이트」식처럼 水平各小線子音에다가 垂直各線母音을 適用한 文子組織의 速記法

○ 一九二五年 七月一日과 二日附의 時代日報紙上에 方翼煥 李源祥兩氏가 「朝鮮語速記術」이라하여 日田鎮式같이한 子音線에 各方向있는 大小楕圓으로된 母音을 加하는式이다

○ 一九二七年一月號 月刊紙「新朝鮮」에 金한터氏가 「우리말速記法」의 이름으로 한子音線에다가 右方向小線或은 小楕圓을 加하는것인데 이의特色은 書線의 下向性을 막기爲하여 子音線中下向 ㅅ字에는 小字 뿐이고 大字가 없는것이 注目된다.

○ 一九二七年七,八月 兩號月刊誌「東光」에 嚴正友氏가 「朝鮮速記術」이라하여 한글子音線形에 가까운 各方向曲線을 子音으로하고 各方向大小直線을 母音으로하여 初聲複用으로 終聲을 쓰는式이니 가명 「직」一字를 쓰려면 充分히 三筆로 書야되는式이다.

○ 一九三四年二月刊 東萊高普校友會誌에 學生 金勇虎氏가 「朝鮮語速記法」을 掲載하였는데이는 橫書가 아니라 縱書式으로서 우리速記史上에 奇異한것의 하나이다.

○ 一九三五年六月十八日부터 七月二十八日까지 二十九回에分하여 姜駿遠氏가 東亞日報에 「朝鮮語速記術詳解」로 連載

다음에는 各式의 法構造를 對照表로서 만들어보기로한다.

表의 作成要領은

1. 文法이 韓國語法과 字法에 依하는 創案이나 他國法의 模倣인 가의別
2. 文字構成에있어서 子音의 平音과 硬激音表示方法 母音表示法 받침을쓰는方法이 있어서 文字그대로 쓰는 別定法이있다.
3. 文字를 構成하는條件에 들어가서 文字의기리가 몇가지 文字의

- 方向이 몇가지인가
4. 받침은 初聲子音形을 複用하는가 別立하는가
5. 助詞는 文字를 그대로쓰나 다른 方法을쓰나

6. 發音表現은 省略되지않고 語形만을 줄여쓰는 文法이 있는가
7. 發音表現과 語形을 다같이 줄여쓰는 略文法이 있는가 없는가 등을 一覽하기로한다

	創刊	文			子			助詞 文字用 別立用	法 有無	略文字 有無
		子音	硬激音	母音	기리	方向	받침			
朴如日	創				2	2			有	有
金○○	創	橫行線		下向線	2	4	複用	文字用 複用	無	無
方李	倣	各種線	加點	方向線	1	4	別立用	複用	"	"
金환터	創	"	別線	"	2	5	複用	"	"	"
嚴正友	創	方向曲線	加點 加圓	方向直線	2	5	"	"	"	有

二. 試案時代 (發表期)

近代的形態國家에서는 반드시 議會가 있으며 議會가 있는곳에 반드시 速記가 있다. 日帝의 鐵蹄下에서 우리나라 國語는 抹殺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速記 亦是도 萌芽期에서 發芽할 機會 成長치못하다가 八·一五解放을 맞이하자 그의 實用性의 確定如否는 且置하고 三, 四人의 速記法式의 案出을 보게되었던것은 今이 評價해서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前述한바 解放以前에 發表된 많은 法式도 있었으나 그中 大部分은 研究課程에서 中斷되었고 또는 創案者自身 海外에서 歸國치못한 事情等으로 말미암아 거의 中斷되었고 오직 많은 苦境속에서도 꾸준한 研究를 繼續하여온 三, 四人의 法式만이 오늘날 우리나라 速記文化를 擔當하게 되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상싶다.

이제 現存하는 速記法式의 發表期를 略述한다면 始初로 四二七九年(一九四六年) 六月二十日 張基泰氏는 逸波式速記法을 서울신문外 各新聞에 發

表하였고 뒤이어 六月末日頃 速記文化의 普及 發展 研究를爲한 速記人의 集團體인 朝鮮語速記學會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結成을 보게 되었으며 同委員長에는 姜駿遠氏 副委員長에 朴寅泰氏가 被選되었고 아울러 各紙에 報道됨으로서 社會各方面에 우리말速記의 全貌를 나타내게되었고 그리하여 全國各地에 散在된 同人間의 連絡과 共同發表의 機會도 갖게 되었던 것이다.

同年 八月三日에는 한글가모쓰기協會速記部主催로 朝鮮神學校에서 速記建設에對한 對談會를 開催하였는데 同席上에서 비로소 各創案者의 自式紹介가 있었다. 參席者는 張基泰 姜駿遠 朴寅泰 朴鍾沈氏로서 當時는 發案程度였으므로 同人間의 批判의 余地가 많았던 것이다.

八月八日에는 朝鮮語速記學會와 別途로 張基泰氏가 主幹인 「朝鮮速記文化協會」가 發足하여 協會의 첫事業으로 速記事務分野와 養成事業에 置重하기로 하였다.

速記事務는 閔載禎氏(言論人)의 많은 協助로 活潑히 進行되었고 養成事業은 主幹自身의 非常한 努力으로 韓國最初의 大規模의 養成機關이 同年九月十日 「逸波 우리말 速記士養成所」라는 看板을 내밀고 發足되었다. 當時入所員은 四十五名 校舍는 昌信洞所在의 昌信國民學校를 臨時校舍로 使用하였으려 授業은 夜間授業을 했었다.

張基泰氏의 開講과 때를 같이하여 九月二十日 새로 設置될 立法機關의 速記士採用廣告가 軍政廳人事行政處로부터 公布되자 主로 主團體(朝鮮語速記學會, 朝鮮速記文化協會)에서는 數次에 亙하여 協議를 거듭하였다. 同會合에서는 當時의 社會的인 環境에서 政治的인 움직임이 起는 決定을 左右하다시피하였으려 또한 尙은 當時의 現存速記士로서는 速記事務의 幅員을 勘當키 困難하여서 이는 堪다

운 速記의 未來使命을 完全히 遂行치 못하게 될것임으로 略記程度에 不過하다하여 躊躇하는論이 支配的이었다.

그立證으로서는 立法議院第六次會議에서 速記의 存廢問題가 論議되어 社會의 많은 物議를 가져왔던것인마 그原因은 事務量에 比하여 너무도 速記士가 極少數였다는點이다.

上述한바와같이 議會의 速記를 擔當하기에는 너무나 無理함을 周知하면서도 建國初期의 議會構成인만큼 모든 苦難을 克服해가면서 萬全을 期하지는 못할망정 精誠을 다하여 盡力할것은 信條로 삼고 無計劃的으로나마 勘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十一月一日附로 朴寅泰 姜駿遠 朴龜泰 朴鍾浣 金天漢 趙壽吉 李龍吉 六氏는 于先 優待와 養成機關設置의 方途를 講究하여줄것의 條件下에 入職을 하였고

金龍完 金商鎬 徐廷錄 崔雲波

手筆速記와 機械速記의 長短點

一. 機械速記는 打字機모양으로 한자 한자 치는것이 아니라 同時打鍵式(피아노처럼)이므로 「공동」을 지드라도 指勢配置를 完備한 다음에 一時에 打字하여야 하므로 이 指勢配置練習에 手筆보다 倍나 되는 長時日을 要하는 것이다.

1. 卽 手筆速記의 短點은 誤讀이 있을수 있는데 反하여 機械速記는 誤讀이 없고

2. 機械速記는 同時打鍵을爲한 指勢配置訓練이 長時日 必要한 것이다.

3. 機械速記라하여 生理的 腦組織을 가진 機械는 아니므로 그냥 「文字」가 되어 나오는것은 아니고 쓰는대로 發音을 打字하는 것이다.

4. 아래의 兩速記方法의 優劣點으로 그것을 보인다

	筆記速記	機械速記
速度	一秒5~6字	5~6字
反文	11倍~12倍	11~12倍
教育時間	900時間	1,800時間
誤讀	有	無
誤聽	有	有
疲勞	少	多
用具	低廉	高價
暗黑時	不可能	可能

崔潤基 韓鶴水
늦게 金學憲諸氏가 養成員으로 採用
되었다. 이하하여 우리민 速記陣은
十二月十一日 午後一時 金奎植博士外
五十二議員이 參席한 豫備會議에서부
터 그活動을 開始하였던것이다. 이같
이 六人速記士가 議會記錄을 擔當한
議會는 어느나라에서도 볼수없으며
또한 議會講成初부터 記錄을 갖게된
것도 世界各國 議會史上에 흔한事例
는 아닌것이다.

이저음 張基泰氏는 實務에 置重하
는 면보다도 後輩를 養成하여 社會에
輩出함으로써 記錄文化의 完備을 期
하고져 養成事業에만 邁進하고 있었
다.

때를 같이하여 養成所開設에 對한
募集廣告가 各新聞에 連日 揭載되자
速記法이 아닌 한글에 가까운 變形의
文字를 가지고 速筆하다시피 하는 體
制로서 速記研究生募集이라하여 加平
에 있는 李德來氏로부터 서울신문을
通하여 廣告한일도 있었다. 이러한

認識조차 못하는 速記의 啓蒙을 爲하
여 諸氏는 機會있을적마다 放送을 通
하여 또는 紙上을 通하여 啓蒙事業에
盡力하였으니 四二七九年十月十二日
週刊「學生新聞」에 朴松氏主幹인「朝
鮮速記者聯盟」結成廣告와 아울러 十
月十九일부터 六日間 同「學生新聞」에
朝鮮語速記에 關한 研究』라하여 朴
松氏自式의 初聲十二字를 發表하였고
또한 十二月二十五日에는 朝鮮教育
研究會刊行으로 朴鍾沅氏著 「朝鮮速
記」가 出版되었다.

翌年인 四二八〇年四月에는 雜誌
「新聞評論」創刊號에 「速記에 對하여」
라고 題한 張基泰氏의 發表가 있었으
며 五月五日에는 藝術新聞에 「速記說
話」라 題한 亦是 張基泰氏의 發表가
있었다.

五月十一日에는 姜載遠氏가 「文化
日報」에 「速記建設의 科學的基礎」라
題하여 發表한일도있다.

以上과같이 速記文化의 啓蒙宣傳事
業은 끊임없이 繼續되어 갔다.

◎投稿歡迎◎

次回에 揭載할 「速記文化」에 아래와 같이
寄稿있으시기를 敬望하나이다.

▲題目 自由

특히 地方速記界에서 活躍하시는 同人의 投
稿를 歡迎함

▲字數 1,000字 또는 2,000字

接受件 原稿는 一切 返還치 않습니다

文化部 白

姜駿遠述

서울式 「速記法抄本」이
必要하신분은 民議院速記
課로 連絡하시면 料無
料로 贈呈해 드리겠습니
다.

一서울式速記法

研究會白一

各 法 式 紹 介

逸波式 編

◆創案者 張基泰氏

◆流 式 幾何線派

◆沿革

逸波式速記法은 張基泰(逸波)氏가 日本 早稻田大學 速記部에서 多年間 研究한것을 基礎로하여 四二七九年 六月에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都下各 新聞紙上을 通해서 『逸波式 우리말速記學』을 創案公表하므로써 그胎動을 보았던 것이다.

今年八月 氏는 『朝鮮速記文化協會』를 發足시키 速記事務分野와 速記技術者 養成事業에 置重키로 하고 그첫 事業으로 韓國最初의 速記士養成機關인 『逸波式 速記士養成所』를 設立하였다 (入所生 四十五名)

爾後 氏는 四二八三年 六·二五事變때까지 꾸준히 養成事業에 獻身하여 約三十名の 門下生을 社會에 輩出시키 生생한 議會記錄의 一役을 擔當케 하였으며 이들中 現存하여 있는 數名이 오늘날 韓國速記界의 中堅人物으로서 活躍하고 있다. 四二八四年十二月 當時 臨時首都인 釜山에서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民議院事務處內에 設立하여 逸波式 速記를 習得 研曆시키 今年까지 約 百八十名の 卒業生을 社會에 輩出하였다.

◆教育狀況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除外)

禮紀四二七九年九月 昌信洞에서 逸波式 速記士 養成所 開設

- " 四二八一年三月 第一回生 九名 卒業
- " 四二八二年三月 第二回生 十三名 卒業
- " 四二八三年三月 第三回生 六名 卒業
- " 四二八二年四月 國防部內에 速記學校를 開設教授

(六二·五事變으로 養成이 中斷)

張基泰氏 8

7
L
C
2
□
H
S
O
Z

2 984

▲校外教育狀況

- 檀紀四二八九年四月 서울高等學校에서 教授
- " 四二八九年三月 大東商業高等學校에서 教授
- " 四二九〇年二月 養正高等學校에서 教授
- " 四二九一年四月 善隣商業高等學校에서 教授
- " 四二八九年十月 春川에서 速記學院 開設
- " 四二九〇年八月 「夏季講座」 서울校洞國民學校에서 開講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同校는 檀紀四二八四年 十二月一日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我國最初의 速記高等技術學校로서의 發足を 보아 當時 臨時首都였던 釜山에서 第二代 國會事務總長인 故朴鍾萬先生을 初代校長으로 모시고 設立을 보았다 同校는 修業年限을 一年으로 定하고 그間 優秀한 人材를 輩出하여 애마른 이나라 記錄 文化의 役軍으로 活躍케 함으로서 名實共히 우리나라에서 必要한 速記技術者의 養成에 碎身하여 왔던 것이다.

同校의 敎科課程은 그 主力을 速記學과 그 實習에 置重하고 國語 法律學 經濟學 및 政治學을 敎養科目으로 編成하여 技術養成과 아울러 各者의 知的 水準을 向上시킴으로서 完全한 社會人으로서의 基礎를 닦게 하고있다 本校는 나날이 激增하여 가는 速記

需要에 繼하여 速記學術의 時急한 普及과 그 發展을 期하기 爲해 授業料等 一切學生負擔을 免除하고 國家豫算民議院豫算中 速記士養成費로서 그 費用에 充當하고 있다.

其間 同校에서는 第六回卒業生까지 百七十四名을 社會에 進出시켜 現在 民議院事務處를 비롯하여 地方議會 地方通信社 및 各重要機關에서 많은 活躍을 하고있다.

▲沿革

年月日	事項
4284.10.1	設立者 故朴鍾萬事務總長初代校長에 就任
4285.10.30	第一回卒業
4286.10.1	國會遷都로 本校를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一番地(中央廳)로 移轉
4287.3.25	第二回卒業
4287.5.30	國會事務處移轉으로 本校를 서울特別市中區大平路一街六十五番地(國會事務處)에 移轉
4287.6.17	故朴鍾萬校長辭任으로 金用雨事務總長 第二代校長 就任
4288.1.26	金用雨校長 辭任으로 崔正宇事務總長 第三代校長 就任
4288.2.21	第三回卒業
4289.3.20	第四回 卒業
4290.3.12	第五回 卒業
4291.3.5	第六回 卒業

▲期別統計表

年度	期別	卒業生數	就職者數	就職率
4285	1	37名	7名	18%
4287	2	21 "	9 "	45 "
4288	3	23 "	4 "	17 "
4289	4	30 "	16 "	51 "
4290	5	31 "	8 "	26 "
4291	6	32 "	6 "	19 "

高麗式編

◇ 創案者 金天漢氏

▲ 4279年에 創案發表 「高麗式」이라 名하였다. (一名 金天漢式)

▲ 流式 單線 幾何線派(日 早稻田式流)

▲ 基本文字 102字 받침 7字 略記法

◇ 沿革

▲ 4279年 創案者 金天漢先生 個人教授

▲ 4281年 9月 서울孝昌洞에 高麗速記 專門學院 開設教育 學院長에 金天漢氏 就任

▲ 4283年 6月 6,25事變으로 一時中斷

▲ 4284年 9月 臨時首都釜山에서 速記 專門學院 續開 教育 學院長에 金天漢氏

▲ 4286年 5月 釜山學院을 分院으로 殘置하고 서울收復하여 橋南洞에 高麗速記技術學院으로 改稱 學院長에 金星漢氏 就任

▲ 단기4287年 5月 學院位置를 서울貫鐵洞51番地로 移轉

▲ 단기4287年 11月 우리나라 最初로 速記通信教育部를 本學院에 附設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음

▲ 단기4291年 9月 開校 第10周年記念 講習會를 開催 教育中

◇ 本學院外教育狀況

▲ 4284年 9月來 現今까지 釜山高麗速記 專門學院開設教育中

▲ 4286年부터 陸軍高級副官學校 速記科에서 現在까지 17期生 教育中

▲ 4286年 9月부터 4291年 3月까지 普隣商業高等學校서 採擇教育

▲ 4289年 7月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市立 서울成人學校速記科에서 18期生 教育中

▲ 4289年 11月 陸軍本部 政訓監室 政訓將校 速記教育

▲ 4290年 5月부터 現在까지 昌德女子高等學校에서 採擇 教育中

▲ 4290年 8月 馬山成人學校에서 採擇 教育

◇ 期別 統計

(軍部 또는 分校 其他教育狀況과 卒業生에 對한 統計는 除하고 高麗速記技術學院(本院의 統計만함)

年度	入學生數	卒業生數	入學生에 對한 卒業生의 比率
4281	3	2	66.6%
4282	2	2	100
4283	50	17	以上個人教授에 依함 1期 34
4284	-	-	-
4285	120	56	2期 46.6
4286	50	20	3期 40
4287	60	25	4期~5期 42.2
4288	140	62	6期~10期 44.3
4289	160	65	11期~13期 40.6
4290	150	60	14期~15期 40
4291	230	70	16期~17期 30.4
計	965	379	39.3%

(基本文字와 文例는 次而으로)

☆ ☆ ☆

☆ ☆ ☆

中央式 編

▲創案者 朴寅泰氏

▲流式 幾何線派(日早稻田式流)

▲4278年 解放後 大幅 整備改編하여 獨特한 法式으로 發展하였음

▲基本文字數 136字

特徵……中央式의 獨特한 速記符號로 基本文字를 形成하고 特殊符號의 連綴로 나타낸 略字法, 同行省略法, 實記略法 音綴에 의한 略字法 等으로 構成

▲沿革

1. 4280年7月 서울市內에 中央速記技術學院을 設立 朴寅泰氏 學院長에 就任 教育開始

(前面에서 계속)

金天堯式 *6

7 ㄷ ㄹ ㄱ ㄴ ㄷ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文例

金天堯式의 獨特한 速記符號로 基本文字를 形成하고 特殊符號의 連綴로 나타낸 略字法, 同行省略法, 實記略法 音綴에 의한 略字法 等으로 構成

朴寅泰式 *7

7 ㄷ ㄹ ㄱ ㄴ ㄷ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文例

2. 4281年6月 第一期生 60名卒業
 3. 4282年6月 第二期生 60名卒業
- 4283年6月 6.25로 中斷

各法式速記文例의 原文

速記는 이제 屬術계 이가 하는것같은 「術」이 아니라 嚴肅한 學問으로서의 段階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람 것없는 略筆法이러니 或은 常識있는 者라도 들었으니 舍겠지하는 速記士를 機械視하는 傾向은 漸次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얼마나 多幸입니다

—俗稱 서울式—

◆創案者 姜駿遠氏

創案者 姜駿遠氏는 일찍이 中央高
 普를 거쳐 惠化專門을 卒業, 若冠으
 로 日帝下에 本式을 創案發表하고 言
 論界에 投身, 京城日報記者로 多年
 活躍하다 8.15解放을맞자 立法議院
 速記長에서 制憲國會速記長을 歷任하
 는 한편 多數의 同門을 養成輩出하여
 議會 開院初日의 速記錄부머를 建國
 史錄에 保存케 하였다.

따르 「서울速記專門學館」을 서울市
 安岩洞에 設立하여 本格的인 速記土
 養成을 繼續하던바 6.25事變으로 中
 斷되었다.

◆流 式

單制式流線派(美. GREGG 式과 類
 似)

◆沿 革

1935年(解放前十年) 6月18日부터 1

同年 7月 28일까지 30회에 걸쳐 東
 亞日報紙上에 「朝鮮語速記法」을 連載
 發表하여 그 語法檢討와 文字學의 深
 奧함에 一世를 놀라게 하였다.

▲基本文字數(子音9×母音6) 54字

▲特 徵

- (1) 子音은 線, 母音은 方向으로 一字
 를 이루며 終聲(바침)은 頭符, 助詞
 는 尾符, 其他로 構成
- (2) 「우달알라이」 語系에 맞도록 主

詞는 線으로 助詞나 語尾는 符號
 其他異形으로 表出

(3) 原語形과 縮字法과 略字法의 三
 種別로 變化

◆教育狀況

- 4281年4月 서울速記專門學館設立
- 4282年3月 第一期生 15名卒業
- 4283年3月 第二期生 15名卒業
- 4285年4月 議政速記學院으로 改稱
 且 釜山서 開講
- 4286年3月 第三期生 9名卒業
- 4287年3月 서울女子商業高等學校에
 서 速記科目으로 教授
- 4291年8月 「夏季講座」를 德壽國民
 學校서 開催코 30名修了
- 4291年9月 「서울速記塾」을 設立코
 現在 個人教授中

姜 駿 遠 式 * 5

速記와 文化

地球위 人類의 「말」이란 700餘語에 50種 文字가 있다 한다.

卽 아직껏 말은 있어도 文字가 없 는 語族이 650族이 되는 셈이다. 曰 野蠻族이라 할수 있다.

이 文字를 쓰는 50餘民族中에도 速記가 發案되어 實用하는 種族과 못쓰 는 種族이 있다. 못쓰는 族屬은 또한 未開族에 屬할것이다.

速記가 發案되고 實用될수있는 社會는 文明 卽 나아가서는 文化社會인 것이다. 速記의 存在與否는 그 民族의 文明度를 재는 「바르케-다」가 될 수 있다.

우리 民族은 歷史的 地理的으로 自主生活을 侵害받은 條件에 陷여어 있어도 그만큼 이 精神을 生命으로 알고 지켜온 님이 速記界에서도 훌륭히 證明된바 있으나 日帝의 抑壓속에서 도 멀리 「하와이」僑胞 朴如日氏의 손으로 3·1運動 4年前인 1909년에 發表하여 「韓民族은에있다」를 速記發案으로써 부르짖었던 것이다.

民主國初부터 速記錄이 남아있는 나라는 야릇하게도 日本과 韓國뿐인 것이다. 다른 先進國들은 그때 그것이 없었다. 韓國은 立法議院에 부터 마련된 速記陣이 國會開會初日부터의 記錄을 훌륭히 남겨놓고 있다. 이것

은 後世에 傳하는 不動의 歷程이다.

速記를 「한글」애끼듯이 애껴야한 時代는 왔다. 우리말速記도 時代의 「한글」이기때문이다. 아마 「速記土法」이 判定되는 날은 우리 社會에서 「速記의 날」로 定하여 「한글날」과 똑같이 記念하여야 할 날이 될것이다.

速記는 高度한 文化社會에 胚胎되는것이요, 그러한 文化社會는 速記가 不缺한 文化財임을 더욱 鮮明히 認識하고야 말것이다.

各議員及著名人士 發言速度

—(一分間基準)— (44)

1914. 10. 1 ~ 1916. 10. 2

姓名	發言速度	姓名	發言速度
金善太	468	韓熙錫	402
金鍾哲	398	曹在千	389
張暉根	348	姜贊宣	343
朴海楨	343	姜永薰	338
朴鍾吉	330	郭義榮	319
金斗珍	309	金東祚	293
許潤秀	297	趙瓊奎	296
任宅根	293	李哲承	290
(아나운서)			
張澤相	288	嚴詳燮	286
宋仁相	286	金學俊	286
朴炳培	286	印泰植	285
鄭一亨	285	金喆安	284
柳鴻	284	徐廷貴	283
黃虎鉉	282	安龍大	282
俞鳳淳	282	申奎植	282
鄭在浣	282	朴瑣鉉	282

姓名	發言速度	姓名	發言速度
吳在暉	280	曹正煥	279
金在坤	279	金顯哲	279
閔寬植	278	金元泰	278
鄭滯潯	278	李泳熙	276
朴世經	276	李鎭玉	275
孫道心	274	郭尙勳	274
金成坤	270	郭透鎭	269
金相敦	269	崔容根	266
金貞烈	266	文鳳濟	264
趙漢栢	263	朴順天	262
孫昌煥	260	禹萬亨	260
金周默	259	鄭在萬	258
高港龍	258	尹亨南	258
朴順碩	256	禹熙昌	256
金俊淵	255	具興南	245
金度演	242	金容珍	240
朴容益	240	朴晚元	240
崔仁圭	239	朱耀翰	238
李鍾南	238	尹濟遠	236
金應柱	235	金東郁	234
金正根	232	元容陝	231
李敏雨	230	羅相謹	229
劉沃祐	229	金一煥	229
李泰溶	222	梁一東	222
李趙淳	222	李存華	221
洪弼基	220	李珍山	220
金善琪	220	李成株	219
韓光錫	218	李在鶴	215
韓根祖	214	李千炳	214
曹泳珪	214	李敏濤	213
趙一載	205	柳青	202
朴相吉	196	李起鵬	195
李益興	191	徐範錫	191
鄭重燮	184	朴忠模	182

- ◎最高速發言議員 金善太議員 468字
- ◎最低速發言議員 朴忠模議員 182字
- ◎議員平均發言速度 271字程度

發言速度變遷狀態

사람의 發言速度는 年年히 變라지고 있다. 그例로서 議政壇上에서 行해 지는 國會議員의 發言速度를 年代別로 表示해 보면 아래와 같은 狀態로 上昇되고 있다.

年代別	一分間發言速度	
	(最遲)	(最速)
制憲國會	180	346
二代國會	180	381
三代國會	200	443
四代國會 (12月末)	188	468

	最高速發言議員名	
制憲國會	尹致映	金鳳祚
二代國會	李鍾榮	朴定根
三代國會	金善太	朴永鍾
四代國會	金善太	韓熙錫

	最低速發言議員名	
制憲國會	徐禹錫	徐容吉
二代國會	李鍾郁	梁又正
三代國會	鄭重燮	朴世徑
四代國會	朴忠模	

速記士職制對照

韓 國 民 議 院			日 本 衆 議 院		
身分別	幹事 4人 主錄 10 事 37 計 51人		身分別	參事 50人 主事 89人 事補 3 計 142人	
職名別	速記士 51		職名別	課所長 4 速記監督 15 主任速記士 28 速記士 64 速記士補 10 補助速記士 3	
職級別	3級 14 4級 37		職級別	13級~10級 65 9級~5級 77	
職務別	課長 1 係長 4 教授 3 主務速記士 24 副務速記士 23		職務別	課所長 4 校閱編輯 11 運 營 1 調 查 1 教 授 4 速記現業 118 速記補助 5	
係 別	第一係 14 第二係 13 第三係 11 第四係 13		課所別	第一課 41 第二課 52 第三課 44 養成所 5	

速記士勤務年數及年齡及男女別對照

韓國民議院速記士			日本衆議院速記士		
勤務年數別	10年以上 3 8年以上 6 6年以上 2 4年以上 8 2年以上 17 2年未滿 15		勤務年數別	30年以上 7 25年以上 12 20年以上 15 15年以上 15 10年以上 15 5年以上 42 5年未滿 36	
年齡別	30歲以上 15 26歲以上 8 24歲以上 19 22歲以上 9		年齡別	50代 10 40代 33 30代 18 20代 81	
男女別	男子 46 女子 5		男女別	男子 111 女子 31	

速記士의 活動狀況

國會議院	逸波式 45名 高麗式 3名 서울式 2名 中央式 1名	計 51名
地方議會	逸波式 4名 高麗式 16名 서울式 5名	計 25名
言論機關	逸波式 3名 高麗式 20名 서울式 3名 中央式 1名	計 27名
教育機關	逸波式 5名 高麗式 10名	計 15名
金融機關	逸波式 4名 서울式 1名	計 5名
警察	高麗式 11名 中央式 1名	計 12名
會社	高麗式 7名	計 7名
官廳	逸波式 4名	計 4名
軍隊	逸波式 143名 高麗式 476名 서울式 2名 中央式 7名	計 629名

速記의 利用範圍

- 一. 議會速記~國會 및 地方議會의 記錄
- 二. 講演速記~講演會 및 講義等의 記錄
- 三. 公判速記~裁判庭에 있어서의 公判進行 및 審問調査上 記錄
- 四. 座談速記~座談會 및 懇談會의 記錄
- 五. 著述速記~著述의 迅速을 期하기 爲하여 速記士에게 口述하는 것을 記錄하는 速記
- 六. 秘書速記~秘書의 職務上 必要로 利用되는 速記

- 七. 電話速記~緊急히 電話로 連絡되는 記事의 記錄
- 八. 放送速記~外國放送의 重要한 內容의 記錄
- 九. 遺言速記~遺言內容의 記錄
- 十. 其他~國家的 會議나 外交的 會議等 各種會議進行의 記錄

速記錄作成過程

速記錄作成過程은 크게 나누어 速記係 編輯係 印刷所의 세過程을 거친다.

(一) 速記係에서의 過程

1. 甲,乙의 速記士가 一組가 되어 會議室에서 速記를 한다.
2. 甲,乙의 速記士가 相互速記原文을 對照한다.
3. 甲,乙의 速記士가 各乙 反文(翻譯)을 한다.
4. 各己 反文된 原稿를 再檢討한다.
5. 脫稿된 原稿를 擔當係長이 通讀한다.

(二) 編輯係에서의 過程

1. 編輯係員이 原稿에 대한 初校를 본다.
2. 編輯係長이 原稿에 대한 再校를 본다.
3. 速記課長이 [全體原稿를 檢討한다.

(三) 印刷所에서의 過程

1. 文選, 2. 組版, 3. 初校, 4. 再校 (夜間勤務編輯係員에 依함).
5. 印刷, 6. 製本.

以上과 같은 過程을 밟고 納本된 速記錄은 速記士全員이 各己 自己가 말았던 速記錄部分에 대한 誤字의 有無를 檢討하여 正誤表를 作成하고 決裁을 받은 다음 配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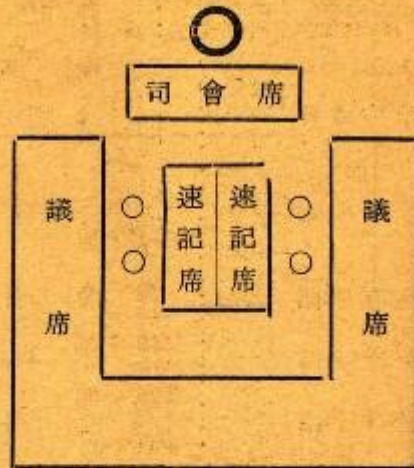
速記授業時間表對照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時間	一	二	三
曜日	5.30~ 午 6.20	6.30~ 7.20	7.30~ 8.30
月	速記法	速記法	反譯
火	速記法	速記法	實習
水	法學通論	速記法	速記術
木	漢文斗文法	速記法	速記術
金	政治學	速記法	反譯
土	經濟學	速記法	速記術

(一年制)

理想的인 速記席



日本衆議院速記者養成所

第一學年

第二學年

研修科(第三學年)

月	9.00~ 12.00		1.00~ 4.00		月	9.00~ 12.00		1.00~4.00		月	9.00~ 12.00		1.00~ 4.00	
	速記法	速記術	英語	表記法		月	漢語	速記術	速記史		新聞	月	速記術	反譯
火	反譯	習學	社會	火	反譯	佛語	社會	英語	火	速記術	反譯	速記術	反譯	
水	實習	漢語	法通	水	實習	憲法	速記法	水	實習	反譯	速記術	反譯	速記術	反譯
木	漢文	速記術	反譯	木	漢文	速記術	反譯	木	漢文	速記術	反譯	速記術	反譯	
金	速記術	經濟	時事用語	金	速記術	國語	經濟	金	速記術	反譯	速記術	反譯	速記術	反譯
土	反譯			土	反譯			土	反譯			速記術	反譯	

第一回 全國速記競技大會開催經過

- ▲ 日時 禮紀四二九一年七月二十一日 ▲ 場所 文總會館
 ▲ 主催 大韓速記協會 ▲ 後援 民議院事務處, 文教部, 韓國日報社
 ▲ 參加法式 및 參加人員
 正級) 逸波式 9名 高麗式 6名 東邦式 3名 韓國式 1名 世鍾式 1名
 準級) 7名 5名 1名 2名 2名

朗讀種類	級	
	正 級	準 級
演說體 (民議院速記錄)	朗讀時間	5分間
	朗讀字數	1,500字(5分間)
	反文時間	65分(13倍)
論說體 (韓國日報社說)	朗讀時間	5分間
	朗讀字數	1,250字(5分間)
	反文時間	65分(13倍)

入 賞 者 및 施 賞

級 等 級	種 類	姓 名	派 式	미스(%)	施 賞
正 級	一 等	宋 貞 浩	逸派式	三 %	民議院議長賞狀 및 賞盃 金메달
	二 等	崔 才 重	"	四 名	名譽會長賞狀 및 賞盃 斗一升萬年筆
	三 等	徐 萬 福	"	五 %	文教部長官賞狀 및 賞盃 斗一升萬年筆
備 考		準級은 成績未達로 入賞者 없음			

第二回 全國速記競技大會要綱

- 一. 日時 禮紀四二九一年十二月十三日(土) 上午十時~下午五時
- 二. 會場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民議院)
- 三. 主催 大韓速記協會,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共同主催
- 四. 後援 民議院事務處
- 五. 資格 全國速記能力者
- 六. 競技級別 正級 每分三〇〇音字以上(五分間式二回) 準級 每分二五〇音字以上(五分間式二回)
- 七. 翻文時間各級實速記時間斗十二倍
- 八. 出題 演說體及論說體
- 九. 賞狀 및 副賞

받아쓰기 어려운 理由

뜻을 몰라서

過則勿禪改, 補天浴日의功, 三拜고
頭, 蘇秦張儀의 혃바닥, 言足而飾非
요 知足而拒諫이라, 指鹿爲馬格의 趙
高, 天無二日 民無二王, 經天緯地
의才, 楚王이好細腰하니 宮中이多我死
라, 毫釐之差가 千里之違라, 許由가
潁水江에 귀를 씻었다, 橫賞賦詩에
醞酒臨江하니 固一世之雄이라, 烏盡
하니 亦狗가 蕩이라.

사랑房서 發言때문에

一대부분이 方言에서 온것一

이사람이 거지키 해서, 그렇게 해
설람은, 되들 안 했다고, 해설라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두에, 이렇거나, 하
기답쌌, 어드르자 는 집니까, 그래선
두문, 이틀치면, 버르장머리, 言權을
請했쉬다, 하기따므로, 하고설라는,
구령이 담 넘어가는 式, 돈을 주어
가지골랑, 그랬됐는데, 생참의는 께
물어봐야 알겠다.

알것같은면서도 모르는것

○△△△調査委員

여기 이 자리가 바로 參觀人 자리
인데 여기서×××氏가 이 자리로 나
와 가지고 委員長에게 말 하다가 다
시 요 자리로 와서 高喊을 치면서 이
리 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문으로
나갔답니다. (例一)

○×××調査委員

證人은 이자리에서 開票를 했습니
까? 저 자리에서 開票를 했습니까?

(例二)

※이것을 速記錄으로 볼때 어느 자
리를 指摘하는지 나중에 알기가 困難
할것 같아서 發言을 記錄하면서 同時
에 位置를 적어야 되는 苦衷이 있음.

두사람만이 아는 일

○國政監査 또는 特別調査委員會 調
査時에 있는 일로서 調査委員과 證人
과 書類를 앞에놓고 두사람만이 問答
을 하다가

(記錄開始)

○×××委員 이것은 어디에 支出되
었습니까.

○△△△證人 지금 브이드린데르 上
部の 指示에따라 支出한것입니다.

○×××委員 이 四千二百五十二萬
圓도 그렇게 나간것입니까.

○△△△證人 네.

이럴 경우 記錄으로서는 그 主語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게된다.

그러나 調査委員과 證人만은 그 內
容을 알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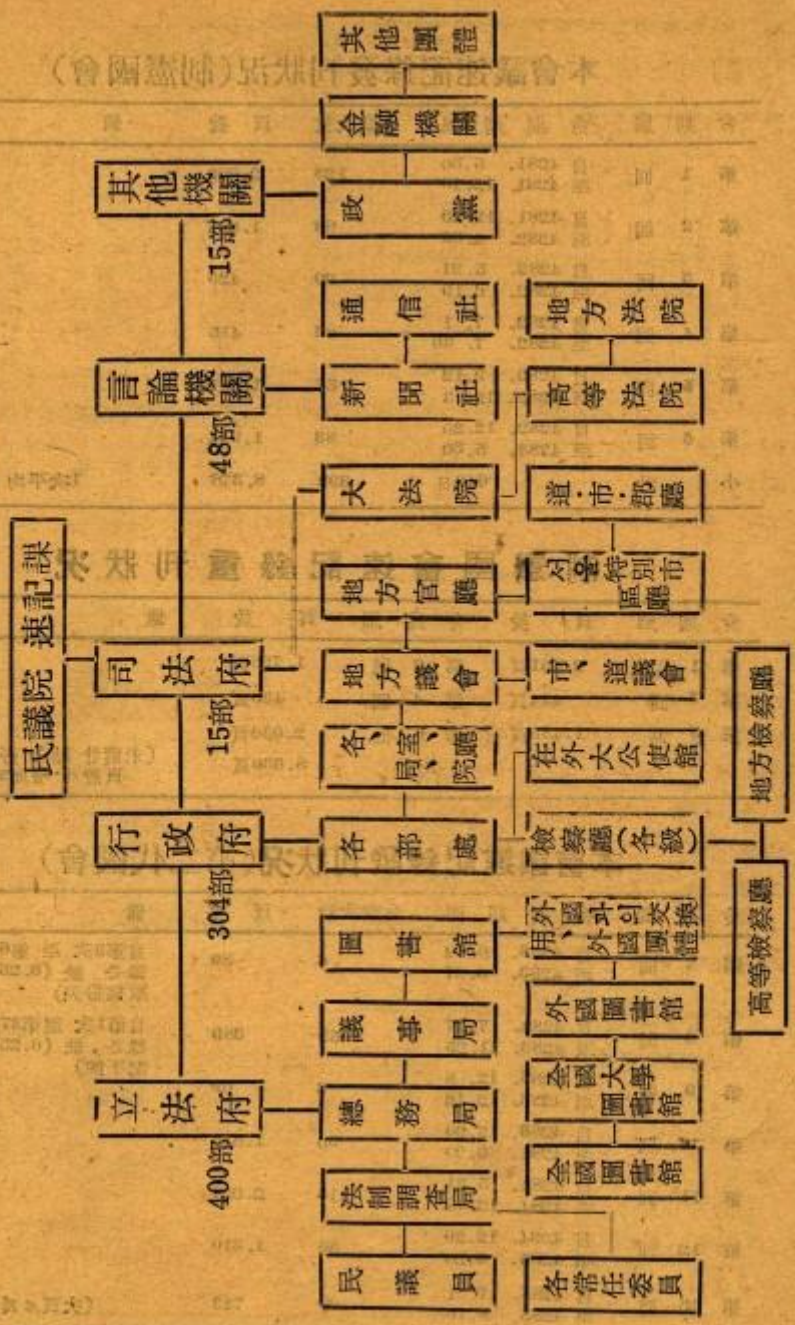
場內騷亂때문에

分科委員會 進行中 委員長의 「場內
가 시끄럽습니다」하는 注意의 말이
거듭되어도 私談 및 同所屬委員間의
議案에 對한 鳩首會議.

또는 國務, 政府委員과 委員間의 個
人的인 質疑問答.

外部로부터 오는 自動車, 電車 또는
出入門 開閉時의 騒音에 依하여 速記
士의 神經을 二重 三重으로 疲勞케
하기때문에 記錄에 中斷은 尙호는
事例가 있음.

速記錄配付表



本會議速記錄發刊狀況(制憲國會)

會期別	會期期間	會議次數	頁數	備	考
第 1 回	自 4281. 5.30 至 4281. 12.18	128	2,560		
第 2 回	自 4281. 12.20 至 4282. 4.30	88	1,857		
第 3 回	自 4282. 5.31 至 4282. 8.19	20	426		
第 4 回	自 4282. 7. 1 至 4282. 7. 30	23	415		
第 5 回	自 4282. 9.12 至 4282. 12. 3	57	1,207		
第 6 回	自 4282. 12.20 至 4283. 5.30	83	1,014		
小計	640日	399	8,378	1次平均 21頁	

制憲國會速記錄重刊狀況

會期別	頁數	會期別	頁數	備	考
第 1 回	2,501頁	第 2 回	1,728頁		
第 3 回	444頁	第 4 回	438頁		
第 5 回	1,483頁	第 6 回	2,036頁		
		小計	8,630頁	(未備한 點은 再編輯하여 頁數가 增加되었음)	

本會議速記錄發刊狀況(第二代國會)

會期別	會期期間	會議次數	頁數	備	考
第 7 回	自 4282. 6.19 至 4283. 6.27	6	80	自第3次 至 第6次分速記錄은 缺 (6.25 事變으로 原稿紛失)	
第 8 回	自 4283. 7.27 至 4283. 11.25	58	989	自第1次 至第07次分速記錄은 缺 (6.25 事變中速記不能)	
第 9 回	自 4283. 12. 8 至 4283. 12.16	6	69		
第 10 回	自 4283. 12.20 至 4284. 5.20	90	1,648		
第 11 回	自 4284. 5.31 至 4284. 12.18	118	2,067		
第 12 回	自 4284. 12.20 至 4285. 6.23	86	1,310		
第 13 回	自 4285. 7. 1 至 4285. 8.10	29	743	(次頁은 附今)	

會期別	會期期間	會議次數	頁數	備	考
第 14 回	自 4285. 10. 15 至 4286. 12. 18	38	822		
第 15 回	自 4286. 12. 22 至 4286. 5. 30	49	657		
第 16 回	自 4286. 6. 3 至 4286. 10. 20	60	879		
第 17 回	自 4286. 11. 10 至 4286. 12. 18	18	423		
第 18 回	自 4286. 12. 21 至 4287. 4. 30	49	960		
小 計	1286日	506	10,046	一次平均17頁	

本會議速記錄發刊狀況(第三代國會)

會期別	會期期間	會議次數	頁數	備	考
第 19 回	自 4287. 6. 9 至 4288. 2. 10	131	2,721		
第 20 回	自 4288. 2. 21 至 4288. 7. 31	81	2,098		
第 21 回	自 4288. 9. 15 至 4289. 2. 18	87	2,205		
第 22 回	自 4289. 2. 20 至 4289. 12. 30	117	3,052		
第 23 回	自 4290. 1. 10 至 4290. 2. 4	19	1,066		
第 24 回	自 4290. 3. 5 至 4290. 5. 3	34	822		
第 25 回	自 4290. 5. 15 至 4290. 8. 30	55	1,282		
第 26 回	自 4290. 9. 2 至 4291. 1. 3	70	3,079		
第 27 回	自 4291. 1. 4 至 4291. 4. 5	16	485		
第 28 回	自 4291. 5. 21 至 4291. 5. 29			(開會式 閉會式)	
小 計	1312日	610	16,812	1次平均 28頁	

本會議速記錄發刊狀況(第四代國會)

會期別	會期期間	會議次數	頁數	備	考
第 29 回	自 4291. 6. 7 至 4291. 8. 31	42	2,020		184
第 30 回	自 4291. 9. 1 至	7	124	第4代開會式 16	2,085.27 644 24,654
總 計		1,051	37,380	制憲開	

各 常 任 委 員 會 速 記

會 期 別	委員會名 時間 次頁	外務委員會	內務委員會	財稅委員會	豫決委員會	國防委員會	文教委員會	復原委員會
第 18 回	數 次 時 間 次 頁				55.45 9 912			
第 19 回	數 次 時 間 次 頁			4.20 2	82.50 27			
第 20 回	數 次 時 間 次 頁				184.05 43 4,192			
第 21 回	數 次 時 間 次 頁			8.00 2	63.00 25 1,587			
第 22 回	數 次 時 間 次 頁	8.20 2	0.20 1	14.30 8	145.40 27 1,860	74.30 22 633	24.30 9 204	81.20 28 666
第 23 回	數 次 時 間 次 頁					4.00 2 23		
第 24 回	數 次 時 間 次 頁	2.00 1 15			8.50 5 87	16.20 6 150		0.50 1 11
第 25 回	數 次 時 間 次 頁	6.00 4 40	11.10 4 120	28.15 13 85	8.25 1 42	6.00 4 67	27.20 13 —	24.20 12 256
第 26 回	數 次 時 間 次 頁		5.45 3 61	10.05 4 87	110.45 19 4,288	10.20 5 110	20.20 10 257	48.50 16 458
第 27 回	數 次 時 間 次 頁						2.42 1 35	8.25 2 40
第 28 回	數 次 時 間 次 頁							
第 29 回	數 次 時 間 次 頁	1.45 1	19.50 7 254	18.05 5 166	144.10 23 3,087	18.00 5 175	23.45 6 811	49.05 18 477
第 30 回	數 次 時 間 次 頁							1.45 1
第 31 回	數 次 時 間 次 頁	14.05 8 55	34.05 15 335	71.15 32 388	708.98 179 15,504	124.10 44 1,107	98.37 39 807	201.50 71 2,111
第 32 回	目 至							

* 載되지 않은것은 記錄에 그치고 印刷하지 않은것임.

錄發刊狀況 (4991.10.10.現在)

農 林 委 員 會	商 工 委 員 會	社 保 委 員 會	交 通 委 員 會	懲 戒 委 員 會	運 營 委 員 會	特 別 委 員 會	公 聽 會	計
								55.45
								9
								912
4.20		3.00					2.00	96.30
2		1					1	33
48.20				5.40				238.05
9				4				56
								4.102
5.90				0.40				75.10
2				2				31
								1.557
60.20	34.30	10.50		1.10		159.45		616.45
20	11	6		2		37		169
507	233	123		12				3,917
				3.20		77.55		85.15
				1		31		34
								23
						9.10	9.00	43.10
						5	3	21
								272
13.55		9.40	4.50	4.00		2.40		136.35
6		5	2	4		1		69
147		80	43	10				304
71.00	28.00	15.05	13.15			66.45		400.10
25	11	4	5			13		115
778	290	154	124			582		7,165
1.55								8.02
1								4
20								101
27.15	11.00		7.30	4.14	17.54	2.16		326.55
9	3		3	1	25	2		103
414	162		98	89	174			4,237
5.35					6.30			13.50
2					6			9
109					75			184
235.10	73.30	44.35	25.35	19.04	24.24	318.31	11.00	2,085.27
76	25	16	10	14	31	79	4	644
1,081	741	388	270	111	249	582		24,654

서울特別市議會速記執務實態表

會期別	集會 公費日	開會日	閉會日	會期	開回数	會議 時	會議 時分	議員士數	一人當 平均速記時間	一日 速記時間	文 書時間	速記發 行數	頁
一階	4289 8.30	4289 9.5	4289 0.14	10	9	29.00	2.53	5	0.35	8.45	8.45	190	
二階	" 9.17	" 9.20	" 9.20	1	1	8.00	8.00	"	1.33	24.00	24.00	20	
三階	" 9.27	" 10.1	" 10.2	2	2	10.55	5.27	"	1.06	10.00	10.00	75	
四階	" 10.19	" 10.22	" 10.23	5	4	22.10	5.32	"	1.07	10.45	10.45	138	
五階	" 10.27	" 10.29	" 11.12	15	1	5.50	5.30	"	1.06	16.40	16.40	34	
六階	" 11.17	" 11.23	" 11.30	8	7	41.25	5.29	"	1.06	10.30	10.30	343	
一定	法 4290 1.10	" 12.1	" 12.31	31	18	63.55	3.33	"	0.43	10.45	10.45	725	
七階	" 1.10	" 1.16	" 1.25	10	9	56.25	6.18	9	0.43	10.30	10.30	504	
八階	" 2.19	" 2.22	" 2.28	3	3	20.15	6.45	"	0.45	11.15	11.15	191	
九階	" 4.6	" 4.10	" 4.11	2	2	13.15	6.37	"	0.44	11.00	11.00	157	
十階	" 5.13	" 5.15	" 5.21	6	6	43.00	7.10	"	0.48	12.00	12.00	457	
一階	" 5.20	" 5.28	" 5.28	1	1	7.10	7.10	"	0.45	12.00	12.00	109	
二階	" 7.5	" 7.11	" 7.20	10	9	41.00	4.33	"	0.30	7.30	7.30	579	
三階	" 7.5	" 7.11	" 7.20	10	8	41.80	5.11	"	0.35	8.45	8.45	400	

十三回時	4290	4290	4290	3	3	19.85	0.33	#	0.44	11.00	1,189
十四回時	"	7.34	7.36	1	1	4.35	4.35	"	0.31	7.45	19
十五回時	"	9.4	9.4	6	6	23.30	3.55	"	0.23	6.30	313
十六回時	"	9.17	9.38	4	4	27.15	6.45	"	0.45	11.15	314
十七回時	"	10.14	11.4	6	6	28.55	4.45	"	0.41	10.15	273
十八回時	"	11.20	11.30	7	7	30.25	5.12	"	0.45	11.15	373
十九回時	4301	12.2	12.31	1	1	7.40	7.40	"	1.05	16.30	74
二十回時	"	1.4	1.9	7	7	4.45	6.46	"	0.58	14.30	516
二十一回時	"	1.27	1.28	4	4	23.00	5.30	"	0.47	11.45	274
二十二回時	"	3.12	3.22	3	3	10.50	3.36	"	0.31	7.45	103
二十三回時	"	4.4	4.12	4	4	21.40	5.25	"	0.46	11.30	311
二十四回時	"	5.13	5.20	4	4	9.00	2.15	"	0.19	4.45	394
二十五回時	4301	6.2	6.7	8	8	37.45	4.43	"	0.40	11.40	406
二十六回時	"	6.21	7.5	2	2	8.00	4.00	"	0.34	8.30	43
二十七回時	"	9.2	9.3	249	249	783.25	5.45	7	0.49	12.15	
出納検査	"	2.11	3.7	140	140						
計											



今年는 우리速記界로서는 가장 結實이 많은 豐年이 래다 하겠다.

그 열매의 한가닥으로 우리『速記文化』도 새롭게 丹裝하고 念願이던 活版化를 이룩하였음을 기뻐한다.

더구나 橫組로 꾸며진 이번號는 여러 會友들에게 새로운 視感覺을 주리라 믿는다. 編輯時間 關係로 더 많은 王稿를 掲載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號를 새 據點으로 躍進할 『速記文化』의 前途를 그리면서 脫稿한다. (奉)

-0- -0- -0-

사람이란 自己가 활력고 마음먹은 일이 成就될때 가장 즐겁다고, 우선 이 만큼이라도 꾸며놓고 보니 編輯者 亦是 한숨 들릴 지름이 생기느상 싶다.

우리가 『速記文化』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第一回 速記展示會를 맞아 第五號를 轉轉으로서 꾸며 會員 여러분의 期待에 副應할 터 하였으나 너무나 貧弱하게 되었음을 부끄러히 생각한다. 그러나 協會의 發展과 더불어 『速記文化』가 쉼없이 자라가는 동안 速記에의 正確한 認識을 社會에 줄것을 믿는다.

이번 轉轉이 나오기까지, 特別히 여러모로 協力해주신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仁)

速記文化 第5號

檀紀4201年12月19日 印刷
檀紀4201年12月11日 發行

發行處 大韓速記協會
(民議院事務處速記課內)

編輯人 大韓速記協會文化部

印刷所 世界日報社出版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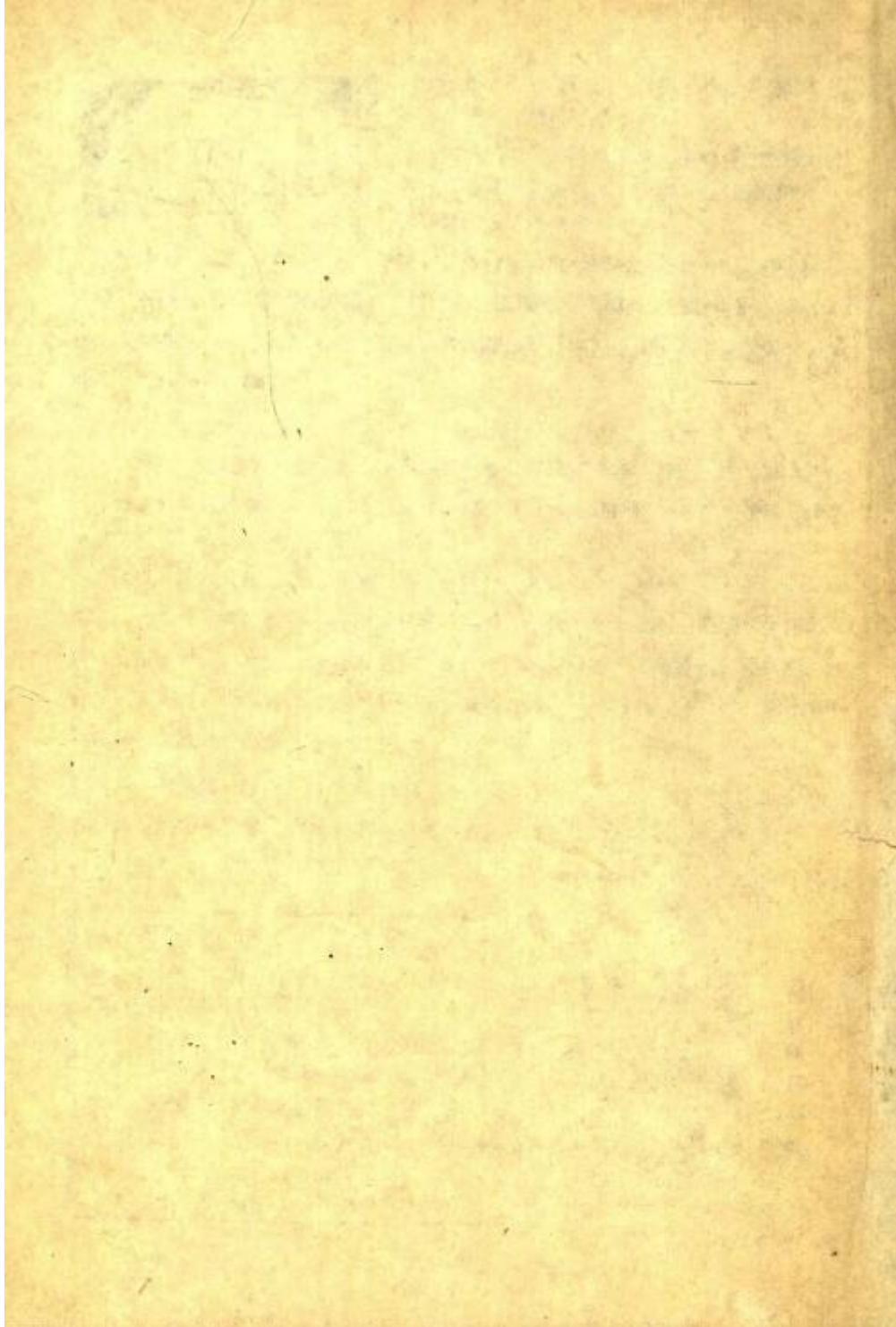
<非賣品>

謹賀己亥新年

會員여러분께 새해에도 福氣이 받으시기를 祝賀드립니다.



協會任員 一同





大韓速記學術協會憲章

才一 章 總 則

才二條 本協會의 名稱은 大韓速記學術協會라 稱한다
本會는 我國에 現存한 諸速記法式을 總網羅한 集結體이다

才三條 本會의 本部는 首都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各支部를 둔다

才四條 本會의 目的은 我國의 真正한 速記文化를 正正的으로 向上 發展시킴에 있다

才五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三種으로 構成한다
1 正 會員
2 準 會員
3 名 普 會員

才六條 本會 會規에 依한 資格審査에 合格된 速記 能力者가 아니면 本會의 正會員이 될수없다
本會 總會決議에 依하여 認定된 速記法式을 習得한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準會員이 될수있다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名普會員으로 推戴할수있다

才七條 正會員이 아니면 本會의 會員으로서의 權利 行使를 할수없다

才八條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本會 會員으로서 가질수있는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한다

才九條 會員은 憲章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의 遵守와 會費를 納付한 義務를 지다

才十條 本會에 다음의 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 事 會

才十一條 總會는 正會員만으로 構成한다
總會는 每年四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正會員 四分之一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必要한時는 臨時總會를 召集할수있다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때는 會長은 二要求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때는 會長은 二要求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때는 會長은 二要求 한 날로부터 一個月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 하여야한다
總會는 本會의 最高機關으로서 그職能은 다음과 같다

才十二條 總會는 最高機關으로서 그職能은 다음과 같다

才十三條 總會는 最高機關으로서 그職能은 다음과 같다

才十四条

- 1 名譽會長의 推 戴
 - 2 會長과 副會長의 選舉
 - 3 理事會의 定足數 決定과 그 選舉
 - 4 監査의 選舉
 - 5 理事會所屬 各部署의 會務에 關한 報告 處理
 - 6 理事會의 對한 權限委任에 關한 決定
 - 7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8 總章의 改正
- 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定한 理事로서 構成한다
- 但 理事는 十五名을 超過할 수 없다
- 前項의 理事選定에 있어서는 各派式에서 一名以上 選定되어야 한다
- 理事會는 本會의 執行機關으로서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
- 1 理事長 및 所屬 各部長의 選舉
 - 2 顧問의 推 戴
 - 3 一切會務의 執行決議
 - 4 總會로 부터의 受任事項의 處理
 - 5 各部에서 提出하는 會務報告의 處理과 總會에 對한 報告案 其他 議案의 決定
 - 6 總章改正案의 決定
 - 7 會則의 制定 및 改定
 - 8 但 總會의 事後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總會閉會期間에 있어서의 그 職能代行 但 代行한 事項은 其後 召集된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才十五条

才十六条

- 9 會員加入 承認의 決定
 - 1 總務部
 - 2 文化部
 - 3 研究部
 - 4 審査部
 - 5 事業部
- 前條各部의 事務分担은 다음과 같다
- 一 總務部
- 1 印章 文書 什器 其他 財産 管理에 關한 事項
 - 2 庶務 財務 連絡 組織에 關한 事項
 - 3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 二 文化部
- 1 宣 傳 出版에 關한 事項
- 三 研究部
- 1 會務調査와 研究에 關한 事項
 - 2 速記學術 研究에 關한 事項
- 四 審査部
- 1 會員 懲戒資格 審査에 關한 事項
- 五 事業部
- 1 委託 速記에 關한 事項
 - 2 會員 就職轉旋에 關한 事項
 - 3 本會發展을 爲한 事業의 實踐 事項
 - 4 各部의 事務分担에 關하여 相互 異議가 生할 境遇에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 本會의 모든 會務는 在籍會員의 過半數로 成立되며 出席員數의 過半數로

才十七条

才十八条

才十九条

才二〇条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司會者가 決定한다
地方會員은 總會出席을 他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前項의 委任은 成員을 論한 手統以外의 效力은 發揮되지 않는다

才二一条

才四 章 任 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一人
2 顧問 若干名
3 會長 一人
4 副會長 一人
5 理事長 一人
6 理事 十五人
7 各部의 部長 一人
8 監 查 三人

才一一条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各部의 部長은 理事中에서 選定하며 該當部의 所管事務를 担当한다
監查는 總會에 提出할 決算報告를 監査하며 總會에 提出케 한다
各委任員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才王一条

才王四条

才五 章 財 政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其他 收入金으로서 充當한다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은 會規에서 定한다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四月一日부터 翌年二月末日까지로 한다

才王六条

才六 章 會員에 對한 賞罰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은 總會의 議決로서 그功勞에 相應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廢章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體面을 損傷하는 所行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에 列記한 懲戒에 處한다

才王七条

1 譴 責
2 停 權
3 除 名
但 除名 處分은 總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한다

才王八条

附 則
이 章은 發起人大會에서 議決함으로써 그 效力이 發生한다
本會 發起人大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會 最初의 會員이 된다

才王九条

才三十条

大韓速記學術協會會規

第一號

事務執行規程

前文

本規程은 總章才三章 精神에 依拠하여 事務執行의 嚴格系統과 円滑을 目的으로 한다

才一條 總회의 決議로서 文書에 依한 事務執行은 總務部長의 處理하되 會長의 決議를 依하여 한다

才二條 理事會決議로서 文書에 依한 事務執行은 各長이 處理하되 理事長의 決議를 依하여 한다

但 理事長은 處理한 事項을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才三條 豫算의 執行은 各部長의 申請으로 總務部長이 理事長의 決議를 依하여 한다

才四條 豫算上에 計上되지 않은 本會收入金은 各部長이 總務部長에게 納入하고 總務部長은 이를 理事長에게 報告하여 한다

才五條 一、二、三、四條件의 規程은 各已代理者가 代行할 수 있다

才六條 監査는 會長의 命을 받거나 必要한 때에는 會長의 同意를 얻었을 때 事務監査를 行할 수 있다

裁

才七條

各部는 如何한 理由로도 監査에 應하지 아니지 못한다
事務行為에 異見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決議에 依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 理事會決議가 多量時間의 餘裕가 없을 때에는 理事長의 處理로 다음에 召集되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는다

附則

才八條

本規程은 理事會를 通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才二號

才一條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規程
이 規程은 總章才二十四條의 依하여 會員의 入會金과 會長에 關한 事項을 定할을 目的으로 한다

才二條

入會金과 會費의 負擔은 會員으로서의 權利에 相應하는 押聖한 義務이며 會員의 團結의

表現이다

才三条 入会金は 正會員 五百圓以上 準會員三百圓以上으로 한다

才四条 会費는 每月 正會員 二百圓 準會員百圓으로 한다

才五条 入会金は 入会와 同時に 納付하고 会費는 每月末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才六条 会費를 三個月以上 未納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員으로서의 權利行使를 停止시킬수 있다

才七条 本會事業部를 通한 委託速記에 있어서는 速記料全額의 五%를 納付하여야 한다

附 則

才八条 本會規程은 理事會에서 議決함으로써 그效力을 發生한다

才三號 會員資格審査規程

才一条 이規程은 敍章 才六條에 依하여 會員資格審査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才二條 會員의 資格審査를 爲하여 別途로 資格審査委員會를 둔다

才三條 資格審査委員會는 審査部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五名의 委員으로서 構成한다

才四條 資格審査委員會에서 의 決定은 無記名 投票으로 行한다

票로서 行한다

才五条 審査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은 理事會에 報告하여 이를 承認하여야 한다

才六條 三個月以上 本會의 準會員으로 在籍한 자가 審査를 받을수 없다

才七條 資格審査는 審査를 받은者의 速記能力思想, 學歷 經歷 年齡 性別 家庭關係等에 關하여 調査한 資料에 依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才八條 速記能力基準은 다음과 같다
一, 論文式 二七〇〇字(十分間) 以上
二, 演說式 三〇〇〇字(十分間) 以上

才九條 速記能力에 있어서 五%以上の 「미스」는 容認한다

才十條 資格審査에 合格된者는 會員審査合格者 名簿에 記載하여 即時 務部에 通告하여야 한다

附 則

才十一條 本會規程은 理事會에서 議決됨으로써 그效力을 發生한다

Handwritten notes in Korean, including '26월 26일' and other illegible text.

大韓速記學術協會

任員名單

顧問 金法麟

(民議院文教委員長)

崔廷宇

(" 事務總長)

徐商俊

(" 議事局長)

葛弘基

(公報室長)

金成坤

(東洋通信社長)

郭福山

(斗室新聞學院長)

朴哲在

(文教部技術教育局長)

名譽會長 趙瓊奎

(民議院副議長)

會長 張基崇

副會長 金天渙

理事長 張嘉根

理事

宋貞浩

(總務部長)

柳虎龍

(文化部長)

金星漢

(研究部長)

李柱範

(審查部長)

韓奉永

(事業部長)

楊佑鎮

(全範成)

尹壽鉉

(尹炳高)

金春盛

(李東淳)

韓奎勳

(無順)

吳潤玉

(無順)

具然東

(無順)

金炳龍

(無順)

監事

審查委員會任員名單

金鎮基

(楊佑鎮)

鄭源道

(韓奎勳)

尹	韓	白	安	李	李	鄭	尹	洪	洪	李	孫	吳	申	金	姜	姓
炳	奉	廷	永	廷	秀	龍	範	宗	準	甲	得	世	雨	相	成	
高	永	欽	吉	坤	讚	男	重	基	杓	熙	珠	景	健	根	福	名

시	會	式	"	"	"	"	"	"	"	"	"	"	"	"	"	逸	派
"	"	"	"	"	"	"	"	"	"	"	"	"	"	"	"	式	式
國	高麗	忠南					陸軍		陸軍	忠南	陸軍		忠南	忠南	忠南	職	場
會	大學	警察					本部		本部	道	本部		道	道	道		
		局								行			行	行	行		
										團			團	團	團		
										司			司	司	司		
										令			令	令	令		
										部			部	部	部		

金	鄭	崔	錢	朴	金	金	李	金	金	金	安	李	李	朴	具	姓
會	漢	光	石	叔	斗	秀	柱	星	天	應	敏	東	俊	元	然	
坤	中	欽	根	欽	欽	吉	錫	漢	漢	珠	鍾	淳	培	求	東	名

"	"	"	"	"	"	"	"	"	"	"	"	"	"	"	"	派
"	"	"	"	"	"	"	"	"	"	"	"	"	"	"	"	式
中	鎮	國	民	海	國	高	釜	市	國	陸	慶	國	國	國	職	
央	海	際	主	洋	際	麗	山	警	際	軍	南	際	際	際	場	
通	學	新	新	警	警	速	日	察	警	本	道	警	警	警		
信	校	報	報	備	備	記	報	局	局	部	議	局	局	局		
	院	會	社	隊	隊	院	報	局	局	會	會	會	會	會		
	官															

金朴鄭黃宋崔金趙朴陣李金徐金金姓
炳泰東重道俊相秉瑾翼在益弘泳潤
庸圭基秀天赫源七叔晚吉善錫秀鎮名

(追而
本名簿에
職名이
마진會員인
協會給務部長
運務官인
인)

高麗式 派式
陸軍 陸軍 陸軍 職場
才一軍法務部
才五管區法務部
國防部

李李梁金張高全朴李李吳李金金宜姓
柱允秉均斗在會永允光斗時永柄泰柱名
千鍾哲盛千天楨大成玉錫烈遠佑柱名

高麗式 派式
海陸軍本部 國防部 才一軍法務部 聯合參謀本部 高級副官學校 職場
" " 兵隊 " " " " " "

編輯 (後) 記

(其의 一)
구미 초고보니 創刊호로서는 너무도 무게가 없는것같은 느낌이강다. 그러나 「로-마」는 하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잇자람의 말로써 辯明에 代身하고 自慰하던다.

本協會 名譽會長인 趙瓊差先生의 揮毫와 本協會 顧問인 葛弘基博士의 玉稿는 本誌를 贊助 빛나게 해주었고 速記界에 多年間 獻身해온 鄭德道氏의 「韓國速記十年史」(連載)를 비롯하여 一般 「제네바」會議韓國代表團 隨行員으로 다녀온바 있는 柳虎龍氏의 「제네바 紀行」(連載) 民議院 速記課長 金震基氏의 「速記士 처遇改善論」 中心하여 「하늘 論壇」 速記學編輯者의 辯 「速記士의 階路」 이밖에도 隨想 詩等 多彩로운 內容으로 編輯하였다. 多幸히 讀者의 良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立春大吉 추위에 음수있던 가슴을 활짝 파고 深呼吸 운 의수리하니 正정 내세상을 만난것 같다. 해마다 맞이하는 봄이건만 올봄은 本誌가 거듭마들 시 작하는 春이다.
江南 갔던 제비가 하로마따 여러분에게 기꺼운 봄소식을 가져다 주기를 믿다. (柳)

출판한 冊을 내게 뒀거나 讀讀들은 冊을 내게 (其의 一)

있거나 編輯을 마치고 編輯后記를 쓸라던 줄거운 것이다. 이제 「速記文化」 創刊호를 發刊함에 이編輯者의 心惜까지 맡아느리니 불라는 시 어머니와도 같다. 불로는 오너며 누리를 이웃사람들이보고서 汗을어웠다고 汗은 지. 어미를 汗 汗을묻지. 머리로 맞어 글이기를 自訂했음때는 「그만 하련」하는 시 어머니 마음 이었는네

事其上 原稿募集에 不及 많은 階路가 있었다. 原稿料를 갖다 을리고 附託 드렸던들 쉬웠을는지 몰랐을것을 貧弱한 協會財政에 돈이 있었서아 자. 冊을 팔아서 寄稿하여주신 여러분에게 서운치 않게 해 드리기로 約束한다. X X X

또 다가자 本誌를 發刊함에 있어서 自進하여 저 지않게 財政物인 協助을 배주머운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當局과 本協會 顧問 金成坤氏에게 編輯者는 勿論 會員 諸位와 함께 感謝한 마음 함께 春이 바치면 다. 이와같이 本誌는 많은 人士들의 後援으로서 發刊을 보게 된것이다. 새며느리를 맞는 시 어머니의 心情이 되어 평하고 읽하기전에 기대하자. (全)

